

아그나르 이야기

사건의 순서 시간정리

1. 연금술평의회가(오루테누스)가 왕국이 멸망하기 전 죽음을 초월하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 역설적으로 죽음의 저주를 퍼뜨리고 왕국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든다.
2. 이유를 알수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죽음의 공포에 떨고있는 명문가문들은 앞다투어 연금술평의회의 죽음을 초월하기 위한 불사의 주술에 참여한다.(최초의 재앙 성의3층)_”레이이나도 참여”
3. 하지만 사람들은 오르테누스의 초월적 존재가 되기위한 실험체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실험은 실패하고 부작용으로 사람들은 죽지도 살지도 않은 망자가 된다.(일반,변이체 등으로 나뉨)
4.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이상한 소문이 돌자 팔레움기사단을 중심으로 성의 질서를 잡기위해 연금술평의회를 조사하기 위해 나선다. 결국 3층 꼭대기 탑에서 도착하자 그곳에서 망자들은 계속 쏟아져 나오며 공격하고 둑숨만 겨우 부지한 기사단 대부분은 서서히 타락해간다.
5. 더욱 완벽한 장악을 위해 오루테누스는 사람들과 팔레움 기사단의 눈을 피해 성의 최심부 지하3층으로 숨어들고 그곳에서 사람들의 신체를 이용해 괴물군세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6. 오르도레멘티아는 연금술평의회의 사건을 빌미로 인간과 기계를 결합한 왕국 정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른바 글룸바운더 프로젝트
7. 초창기 알렉세이를 포함한 글룸바운더들이 타락한 기사들, 변이체들 등을 정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못한채 반복되는 전투에 곧 멘탈이 무너져가며 그들역시 왕국정화에 실패한다.
8. 오르도레멘티아는 마지막 글룸바운더 아그나르를 만들어 낸다. 하지만 몇몇 남아있는 글룸바운더들이 완벽한 정화를 위해 최초의 실험체 레이나를 죽여야 한다고 하지만 아그나르는 반대하고 혼자힘으로 모든 글룸바운더를 죽이고 최심부층까지 내려가 오루테누스까지 제거하는데 성공한다.
9. 결국 왕국은 완벽하게 무너지고 살아남은 몇몇의 생존자들은 잊혀진 주택으로 숨어들어간다.

10. 하지만 레이나가 본인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루프를 통해 또다시 성이 움직이게 만들고 아그나르를 다시금 불러낸다. (반복).
11. 결국 마지막에 아그나르는 레이나와 자신까지 정화한 채 완벽한 정화를 이룬다.

주요 이벤트가 일어나는 성의 공간

- 잊혀진주택 (스토리 시작점)
- 주택내부 베스티지 훌 (알렉세이)
- 주택내부 잊혀진 서재 (레비아, 에드라)
- 잊혀진주택 외부 하르크의 대장간 (하르크)
- 망자의 마을로가는 황무지 길 (떠도는 망자들)
- 망자의 마을의 대광장, 사형장 (알도르, 레이나)
- 망자의 마을 버려진 마켓 (베라크)
- 파르데스 성 성벽 외곽 성문앞 도개교 (루고스)
- 파르데스 성 성벽 내부 (에이라문트)
- 성채 내부 1층_부엌, 병영, 하인들의 숙소 (변이된 망자들)
- 성채 내부 1층 과 2층 메인계단 (변이된 망자들)
- 성채 내부 2층 팔레움기사단의 예배당 (타락한 망자들)
- 성채 내부 3층 최초의 연금술평의 실험실 (레이나, 분해된 실험재들), 성주 침실, 솔라, 화장실 (연금술평의회사도, 귀족 망자들)
- 성채 내부 2층 그랜드훌 (나제르)
- 성채 내부 지하1층 감옥, 우물, 저장고 (바르드로스, 변이된 망자들, 타락한 망자들)
- 성채 내부 지하2층 오르도레멘티아 실험실_영겁의 연단 (하르트라, 벨페르, 네크리아)
- 성채 내부 지하3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사일렌트)
- 성채 최심부 지하 창조의방 (오르테누스)

-prologue 대기록 (레비아)

#1 레비아의 서재

레비아: “이 이야기는 그들의 처절한 사투이자 반복되는 지옥속에서 탈출하기 위한 생존기의 기록이다.”

수백년전 아무것도 없던 황폐한땅에 어디서 온지 모를 궁핍한 행색의 외부인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간절한 기도에 신이 도운건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비옥한 토양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들은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고 우물을 파내려갔다. 노력끝에 깨끗한 물과 자원이 넘치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주변을 단단하고 거대한 성곽으로 둘러 쌓아 주변의 외압과 공격에도 대비하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사람들은 이 거대한 성벽안을

파르데스(pardes)왕국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커뮤니티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문으로 나뉘기 시작했으며 그안에서 작은 사회를 형성했다.

단단한 성곽으로 둘러진 파르데스왕국은 질서와 평화 그리고 합리적인 시민의식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는데... 시민이 번성할수록 자신들의 선조의 업적과 핏줄을 내세우며 명문가를 칭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세력다툼이 긴장을 불러왔다. 격렬한 싸움으로 비교적 약한 하층민들은 외각이나 지하로 고립되기 시작했고 그들위로 군림한 일명 명문가문들은 권세를 누리며 왕국에 필요한 어떤 노동도 하지 않고 착취와 나태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낙원으로 불리던 왕국의 중심에서 쫓겨난 하층민들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고 궁핍한 상황이 장기간 유지 되자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하층민들끼리 서로싸우고 심지어 자식을 버리거나 가족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서서히 사회적 유대는 완전히 무너져갔고 사람들이 줄어감에 따라 막대한 노동과 책임은 서서히 명문가들이 해야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결국 파르데스 왕국은 번영과 유지 생존을 위한 살육의 전쟁이 반발했고 왕국은 완전한 혼돈속으로 붕괴했다. 머지않아 생명력을 잃어버린 왕국엔 적막이 찾아왔고 일부 살아남은 이들은 폐허가 된 왕국을 버린채 도망치듯 잊혀진땅 남쪽으로 이동했다.

그들의 모습은 찢기고 짖이겨진 넝마주이와 같았다 어설픈 봉합으로 흐르는 핏물, 갈기갈기 찢어진 피부와 덜렁거리는 사지, 영혼을 잃은듯한 눈빛, 말라버린 눈물자국 살아남은 자들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수 없었다...

대륙의 남쪽 황무지 버려진땅 그곳은 메말라있었다. 작은 벌레들의 움직임 새들의 지저귐은 찾아볼수없었고 풀한포기 자라지 않았고 물조차 흐르지 않았으며 바람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그곳엔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수 없었으며 흙먼지와 말라비틀어진 넝쿨들이 전부였다.

얼마나 허무한가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던 왕국이 모든걸 포기한채 대륙의 외각 버려진땅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선조들이 그랬듯 신께 기도를 올렸고 남아 있는 지식인들은 과학과 연금술을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장정들은 기사단을 설립해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여 왕국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러 왕국의 지휘체계는 종교와 과학 그리고 기사단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 했고 또다시 번영하며 화려하고 웅장한 왕국의 미래가 그려지는듯 했다.

하지만 희망찬 미래는...곧 산산히 부서져 버렸다. 버려진땅의 저주인지 도망자들에 대한 선조들의 저주인지 어느샌가 알수없는 불치병이 살아남은 명문가의 후손들을 훔쓸었고 왕국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를 지켜보던 연금술평의회는 전염병을 선조들의 저주라 칭하고 신체 재생과 불사의 연금술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과거의 참혹한 악몽이 기억난 명문가후손들은 대다수가 연금술평의회에 힘을실어주기 시작했다. 결국 왕국의 실권은 연금술평의회로 넘어가기 시작했고, 그것이 엄청난 실수였다는것을 깨닳는데는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들의 오만함과 욕망은 왕국에 재앙을 선사하기 시작했는데 연금술평의회의 명령아래 힘없는 수백명의 양민들이 강제로 실험당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실패가 반복된 끝에 그들은 죽지도 살지도 않은 망자들이라 일컫는 꼼찍한 피조물들이 되어 사람들을 무자비로 덮치기 시작했다.

망자들이 실험실을 떠나 왕국을 집어삼키기 시작하자 팔레움 기사단이 막기시작했지만 그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그들도 망자들과의 싸움에 지쳐서 하나둘 타락하기 시작했고 왕국은 다시한번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를 막기위해 연금술평의회와는 다른 이념을가진 오르도레멘티아라는 과학융합조직은 왕국의 정화라는 명분하에 연금술평의회의 피해자들을 모아 또다른 인체 실험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오르도레멘티아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은 나약하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인간성, 감정등이 제거된 인공생명체를 융합하여 불사의 인간 병기들을 만들어 냈고 그들은 정화자 혹은 그룹바운더라고 불리우는 강력한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그룹바운더프로젝트는 완벽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수많은 실패작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오르도레멘티아는 죽지않는 불사의 신체를 만들어 냈지만 결국 인간은 감정과 정신이 있어야 오롯이 존재한다는것을 간과하였고, 대다수의 그룹바운더들은 멘탈이 무너져가며 스스로를 파괴하거나 왕국에서 흔적을 지우고 사라진다.

결국 왕국은 완전히 몰락해버렸고, 몇명만이 왕국 외각에 잊혀진 저택에서 남아 이제는 언제 시작했는지, 누가 시작했는지, 언제 끝날지 알수도없는 반복되는 지옥같은 재앙을 깨부시기위해 우리들의 정화는 지금도 계속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재앙이 끝날때쯤 이 기록은 마지막을 함께하게 될것이다.

-episode1 뒤틀린 욕망(오르테누스,레이이나)

#1 성 의 꼭대기3층 오르테누스의 서재

고대문서와 각종 약물로 가득한 어둡고 빛하나 들지 않는 작은 방. 그곳엔 연금술 평의회 최고 원로 [오르테누스](#)가 마지막까지 실험을 거듭하고 있다. “똑똑똑” 거미줄이 가득쳐진 거대한 방문을 누군가가 노크를 한다.

시종1:“오르테누스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문앞에서 고개를 떨군채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오르테누스가 자신의 로브를 챙겨 입고 지팡이를 들어 문을 톡 하고 건드리자 마법진이 잠깐 반짝이고 거대한 문이 열린다. 문밖에는 한눈에도 쇠약해보이는 백발이 성성한 여러 궁정시종들이 최대한 고개를 조아리며 비굴한 모습으로 최고원로를 알현하고 있다.

오르테누스는 아무 말하지 않고 손짓으로 방안을 가르킨다. 그의 손짓에 여려명의 시종들이 방안으로 들어가 고대 서적과 여러가지 물건들을 힘겹게 수레에 옮긴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하나 건강해 보이지 않고 다들 늙거나 병들어 걷는 것 조차 힘들어 보인다.

“우당탕” 결국 한 시종이 물건을 나르다 넘어졌지만 오르테누스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시종은 오르테누스의 눈치를 보듯 아픈내색조차 하지 못한채 재빨리 다시 물건을 챙겨 절뚝이며 짐을 싣는다. “빼걱~ 빼걱” 무겁고 둔탁한 수레바퀴가 힘겹게 굴러가는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오르테누스의 얼굴은 일그러진다.

오르테누스: ... “가여운것들...한낱 벌레같은 미물과 다를게 무엇인가...하긴 너희들이 이런모습으로 태어난건 왕국 선조들의 시기심 때문이겠지...” (마치 벌레를 보는듯한 역겨운 표정으로)

#2 성의 옥탑3층 숨겨진 오르테누스의 “창조의방”

오르테누스는 지팡이에 의지한채 발걸음을 재촉한다. 어두침침한 긴복도를 지나 본인이 만들어낸 “창조의방”으로 들어가자 그곳엔 수십명의 연금술평의회 주술사들이 오르테누스를 기다리고 있다.

창조의방 바닥과 천장엔 동일한 문양의 마법진이 그려져있고 사방의 벽엔 마법의 고대어가 겹겹히 새겨져 있다. 정중앙 마법진의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유리관이 세워져 있다.

오르테누스가 연금단상으로 한발한발 올라가 서자 유리관 안에 담겨있는 은발의 흰피부를 갖고 있는 여자(레이나)가 보인다. 여자는 죽은듯 고요하게 물방울만 일으킬뿐 아무소리도 기척도 내지 않고있다.

오르테누스: “저주받은 나약한 피조물이여... 아직도 선조들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대의 저주받은 육체 또한 왕국의 축복으로 구원해 주리라...”

아르테누스의 눈은 광기에 사로잡혀 있고 그의 표정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굳어져 있다. 아르테누스의 눈짓에 시종들은 수레를 끌며 마법진 오각성의 모서리마다 실험실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순서대로 내려 놓는다. 생물들의 신체 조각들로 보여지는것들 중에는 인간의 뇌로 보이는것도 눈에 띈다. 이어 시종들은 무릎을 꿇은채 마법진이 그려진 보자기로 조심히 조각들을 감싸쥐고 품속에서 단검을 꺼내 치켜세운다.

오르테누스: “네 선조의 무덤에 침을 뱉어라! 내가 너의 불안전한 육신과 영혼을 나약함에서 해방시켜주리니! 네가 거부하던 왕국의 은총을 받아 들이고 너에게 죽음이라는 저주를 물려준 선조들을 원망하라!!!

(양손을 위로 뻗은채 핏대를 세우며 크게 외친다.)

이어 양옆으로 길게 도열해있던 주술사들의 복장에 시종들은 일제히 단검으로 들고있는 조각들을 찌르자 검붉은 피가 시종의 얇은 팔뚝을 타고 온몸을 적시며 바닥에 훌뿌려진다.

오르테누스: “네 이기심과 욕망을 부끄러워 말라! 나를 구원을 받아 들여라 그러면 너에게 불사의 육신과 영혼을!!! 백야의 광명보다 순결한 어둠을 선사하리라.”

아르테누스의 마지막 외침과 함께 피로 물든 마법진은 붉게 빛나며 에너지막을 형성하고 마법진 위에 있던 시종들의 옷이 조금씩 찢겨지시 시작한다. 당황한 시종들은 자리를 박차고 마법진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마법진의 에너지가 더욱 증폭하고 그 충격으로 온몸이 산산조각이나 피가 사방으로 튀기 시작한다.

시종1: 아안돼!!! 안돼!!! (마법진이 팽창하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린다)

시종2: 오르테누스님!!! (제자리에서 오르테누스를 보고 발버둥 치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시종여러명: 크아아악!!!! (뼈가 부러지고 살이 짖이겨지는 소리가 비명소리와 함께 방안을 가득 메운다)

기괴한 주술사들의 기도소리과 시종들의 꼼짝한 비명이 섞인채 마법진은 시종들의 피와 살 비명까지 집어 삼킨후에야 오르테누스의 구원이 의식이 끝나게 된다.

오르테누스는 직접 재단단상을 내려가 지팡이에 의지한채 유리관으로 다가간다.

오르테누스: “선조들의 영광은 잊어라 ... 그들은 위선자들이고 방관자들일 뿐이다... 이제 때가 도래했으니... 왕국의 축복을 널리 펼쳐야 하리니... 너를 영생으로 이끈 자들을 기억하라.”

오르테누스의 마지막말이 끝나자 이내 여자의 눈이 아주 살짝 떠지고 오르테누스의 입가에 열은 미소가 띄어진다.

-ep2왜곡된 신념(나제르)

#1 팔레움 기사단 기도실

어두운 기도실에서 무릎을꿇고 혼자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나제르의

나제르: “동방의 야만인들과의 전쟁에 패배했을때도 우린 무릎꿇지 않았다... 선조들이 처형을 당하고 후손들이 버려진땅으로 도망쳤을때도 역시 우린 무릎꿇지 않았다... 하지만 재앙이 몰려와 서로를 물어뜯었을때 재앙이 일어났을때 비로소 난 무릎꿇을수밖에 없었다...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어 죽이는 이곳이 곧...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므로” (나레이션)

팔레움 기사단의 파견 심문관 **나제르** 얼마전부터 성내에 “연금술평의회”를 중심으로 저주받은 망자들이 창궐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듣고 성의 꼭대기탑을 조사하기로 한다. 3층으로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은 미로처럼 복잡했다. 여러개의 문들은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장금장치가 없었지만 여러명의 기사들이 달려 들어도 쉽게 문을 열지 못한다.

#2 성내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미상의 기사1: (문을 강하게 내려치며) “쾅! 쟁! 쟁!” 젠장!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미상의 기사2: (나제르를 바라보며) 아무래도 마법이 걸려있는것 같습니다.

나제르: (좌우로 손짓을하며) 불경한 장소다... 성스러운 팔레움의 기도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나제르는 기사들을 뒤로 물러서라고 한뒤 자신의 커다란 아라크(초승달 모양의 곡도) 한쌍을 들어 올리고 왕국의 수호기도를 올린다.

나제르: (아라크를 겹쳐 이마에 기댄다) “왕국의 수호자들이시여, 성전의 아버지여 성스러운 팔레움기사단의 앞을 가로막은 이단자들을 심판하시어 고통속에서 참회하여 왕국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커다란 아라크가 푸른 빛을 뿜어내고 나제르는 빠르게 잠긴문을 내려친다. “차캉 캉”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문은 산산조각이 나오고 탑총으로 올라가는 칠흙같은 어둠이 기사단을 마주한다.

#3 성내 3층 꼭대기탑

“저벽 저벽” 조심스럽게 한걸음 한걸음 내딛는 발걸음에는 긴장감이 흐른다 얼마나 해메였을까 미로처럼 복잡한 계단은 기분나쁜 악취 마치 살과 피가 한데 뒤엉켜 썩어버린 냄새로 가득하다. 바닥엔 끈적한 액체와 구더기가 들끓고 벽엔 사람손모양이 피칠갑되어 있다.

미상의 기사1: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일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주춤거리며 말을 잇지 못한다.)

나제르: “정신 차려라 기사여 우리는 왕국의 충성을 다하는 성스러운 팔레움 기사단이다”
(나제르는 아라크를 들어올리며 앞장선다.)

몇발자국 나아가자 인간의 모습이라고는 볼수없는 망자들이 기괴한 소음을 내며 서성이고 있다. 그중 겁을 먹은 기사가 뒷걸음질 치며 도망쳐 기사단의 대형에서 이탈하자 순식간에 기사를 공격하며 애워싼다.

미상의 기사4: 제...젠장!!! 이건 악마야!!! 나같은 하급 기사가 처리할수 있는게 아니라고!!
(동료 기사를 밀쳐 넘어뜨리며 전속력으로 계단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다)

변이된 망자들: “키아악!!”
(흔자 낙오된 미상의 기사4를 향해 빠르게 돌진한다)

나제르:(정면을 응시한채 곁눈질로 도망가는 기사를 보고 인상을 찌푸린다) “안돼!!! 대형을 유지하라 돌아와!!”

나제르의 다급한 외침에도 겁을먹은기사들은 되는대로 소드를 휘둘렀다.

밀쳐진 미상의 기사:(바닥에 누운채 허공에 칼을 휘두른다) “저리 비켜라!!!! 이 괴물들아!!! 아아악!!!”

마구 휘두른 소드에 일부 망자들의 팔과 머리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그러나...그 망자들은 그저 떨어진 자신의 팔과 다리를 집어든채 입으로 가져가 씹어 삼키거나 잘린부위에

떨어진의 팔다리를 얹지로 쑤셔 박는다. 망자들에겐 고통도 공포도 느끼지 않는것처럼 보였다.

기괴한 광경을 본 기사는 몸이 그대로 굳어져 버렸고 망자들은 넘어진 기사에게 달려들어 머리 팔 다리 들을 잡아뜯어내고 갑옷을 벗긴뒤 연한 살덩이들을 씹어 삼킨다.

밀쳐진 미상의 기사:(기사들을 향해 손을 뻗어 몸부림친다) 아아!! 안돼!!! 안돼!!! 아아악!!!! 살려줘!!!! 제발 살려줘!!!! 개자식들아!!!!

변이된 망자들: (기사의 신체와 떨어진 살점을 닥치는대로 씹어 삼킨다) “찌걱찌걱 투둑 쫓아억”

기괴한 살육의 소리에 나제르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나제르의 아라크가 허공을 가로지른다.

나제르: “정신차려라!!! 우리 형제를 도륙한 저주받은 괴물들을!!팔레움 기사단의 성스러운 불꽃으로 저들을 심판하자!!!” (아라크의 독려에 기사단에게 팔레움 기사단의 용맹한 기운이 흐른다)

나제르의 기운을 받은 다른 기사들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진영을 유지한채 나제르의 돌격에 함께 한다. 하나 둘씩 쓰러지는 망자들 그 사이에는 오롯이 인간아이의 모습을 한 존재도 있었다.

미상의 기사1: (잠시 대열에서 이탈해 인간아이에게 손을 뻗는다) “여기에 있으면 안돼! 어서피해!!”

기사의 팔은 아이에게 달기 직전이였지만 순식간에 변이된 망자가 기사의 손을 낚아채 뜯어버렸다. 기사는 재빨리 몸을 웅크리고 대열로 복귀했지만 많은피가 흘러 전투불능 상태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상했다 기괴한 망자들 사이에 겁을 먹지도 동요하지도 않는 인간아이였다.

나제르: (나제르는 직접 인간아이를 베어버린다.) “자비는 없다 산자도 죽은자도 아닌 괴물들이고 이단이며 흉측한 악마의 피조물이다.”

아이는 단발마의 비명을 지르지도 못하고 목이 떨어진다. 굴러떨어진 아이의 목은 또렷하게 떠져있었고 기사들의 아이의 눈을 보며 흔들렸다. 하지만 팔이 잘려진 기사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아이의 두개골을 밟아 부셔버렸고 상처를 동여메고 굳은 표정으로 다시 칼을 쥐고 선다. 이때부터 였을까 망자와 인간을 구분할수 없다고 판단한 기사들은 아무 감정없이 망자들은 물론이고 인간으로 보이는 존재들도 족족 베어갔다. 그럴수밖에 없었던건 그들은 완전히 죽지도 살아있지도 않은 존재들처럼 그 어떤 감정도 고통도 느끼지 않는듯 했다. 오로지 망자들의 기괴한 비명소리와 울부짖음이 전부였다. 기사들은 계속되는 살육에 점점 감정이 메말라 버렸고 그 어떤 망설임도 없어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자들을 베고 앞으로 나아갈수록 오히려 그 수가 점점 늘어났고 기사단에게 점점 죽음의 기운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기사들은 본능적으로 수세에 몰린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수십차례의 지역같은 성전을 경험한 기사들에게도 낯선 감정이였다. 결국 대다수의 기사는 타락한채 정신을 놔버렸고... 몇몇의 고위기사들(루고스 포함)만 생존한채 독자적인 신념에 따라 성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흘어졌다.

어슴푸릇 떨어지는 달빛...차갑고 건조한 공기, 회색빛 대리석의 삭막함 나제르는 지친몸을
이끌고 성의 중앙 대광장으로 들어선다. 창밖의 달을 바라보는 나제르 달빛이 구름에
가리자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운다 이내 아라크를 다잡고 가슴에 맹세를 한뒤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다...

나제르의 독백

“나의 운명은 무엇인가...”

“나의 영혼을 바쳐 왕국을 위해 죽는것이다...”

“나의 의무는 무엇인가...”

“광명이 비치는 그날까지 왕국의 질서를 지키는것이다...”

“나의 맹세는 무엇인가...”

“최후의 마지막 까지 악마의 피조물들에게 왕국의 은총을 내리는것이다...”

“나의 신념이 곧 왕국의 의지이다...”

광장중앙에 굳게선 나제르의 뒷모습이 보인다.(fade out)

-ep3탈주자(알렉세이)

#1 성내 지하층 메인광장

거친숨을 내쉬며 거대한 통소드를 잠시 어깨에 기대는 정화자(알렉세이) 그의 눈앞에는
인간이라고 볼수없는 어찌면 썩은 고깃덩어리같은 망자의 시체들이 널부러져 있다.

알렉세이: (크게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들어 성의 천장과 곳곳을 생기 없는 눈으로
바라본다.) “오르도 레멘티아의 구원을 받고 나는 사명을 얻었다...하지만...너무 오랜
순례자의 사역이 나의 믿음을 잃게 만들었다....”

찬란했던 역사의 위용을 자랑하는듯한 거대한 건축물들과 왕국의 뒤대한 역사가 그려진
벽화가 웅장하게 보이고 복도 끝 깊숙한 어둠 속에서 또다른 망자의 신음소리가 들려온다.

망자1: “끄어어억 끄어억”

알렉세이:(빠르게 통소드를 고쳐잡은 알렉세이는 망자에게 달려든다.) “촤아악!”

초점이 맞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손을 휘적이던 망자는 알렉세이를 채
발견하기도 전에 온몸이 산산조각이 난다.

알렉세이: (망자의 기억이 조각이 알렉세이와 함께 공명한다. 미간을 찌푸리는 알렉세이)
“...망자...악마같은 이 피조물들의 기억이 사실일까? 혼란스럽다...정화 의식에 싸구려
감정은 배제하라...이게 글룸바운더의 자세아니었나...그런데 나는 왜 흔들리는 것인가...”

망자1의 머리: (둔탁한 소리와 함께 떨어진 머리가 알렉세이의 발앞으로 굴러온다) “쿨럭
크어어억”

알렉세이: (망자가 토해낸 피와 고름덩이가 알렉세이의 부츠에 훈다.)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것이 악마의 속임수가 아니라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선조들의 섭리를 거부하여 저주가 내린것인가...”

물끄럼이 바라보던 알렉세이는 어떤 동요도 하지 않고 망자의 머리를 박살내려던 찰나의 순간.

망자1의 머리: “오...오르테...누...” “콰지직!”

(분명하고 선명한 발음 알렉세이의 동공이 흔들리며 망자의 짓이겨진 안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알렉세이: (희미하게 떨리는 손끝) “너...너는 누구인가....너는 어디에서 왔는가...!”

알렉세이가 망자의 눈을 바라보자 알렉세이의 머리속에서 망자의 과거의 삶이 공명하여 보여진다.

따스한 햇살, 향긋한 꽃내음, 푸른 들과 산, 따뜻한 집과 가족 알렉세이의 눈에 비친 아름다운 한 인간의 추억... 그 망자의 추억엔 알렉세이도 함께 하고 있다. 병영에서의 생활 고된 전투훈련... 그리고 어두운 연금술평의회의 사도들에게 둘러쌓여 공포에 떨고 있는 마지막 모습... 알렉세이는 깨닳게 된다. 망자들은 왕국의 구성원이였으며 악마의 피조물도 선조들이 보낸 저주의 산물도 아니였다. 그들은 알렉세이와 같은 인간이였다.

알렉세이: (짓이겨져 버린 망자의 시체를 손으로 주워들며) “나는 무엇을 했는가... 영겁의 시간동안 수많은 망자들을 정화했다... 정말 나는 그들에게 구원을 내린것인가...? 그렇다면 그들은 왜 울부짖었는가... 왜 고통의 해방에서 저항하였는가... 다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는건가?”

알렉세이: “연금술평의회... 오르테누스... 이 해답을 알고있는자는 하나뿐이군.... 사일렌트... 그대는 마땅한 응답을 해야 할것이다...” (알렉세이는 통소드를 고쳐 잡고 성의 꼭대기로 향한다.)

#2 성내 1층, 지하1층 메인 계단

한층 한층 올라갈때마다 널부러져 있는 망자들의 시신, 아니 고깃덩어리들이라고 보는게 타당할것 같은 모습이다. 하지만 그 망자들의 기억은 완벽하게 소멸되지 않은채 각자의 특징대로 머물고 있었다. 어떤이에게는 눈동자에서 어떤이에게는 몸에 박힌 유리 파편에서 어떤이는 마지막 숨결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스칠때마다 알렉세이는 정화시켰다. 망자들의 추억과 과거의 기억들이 알렉세이를 괴롭게 만들었고 그로인해 알렉세이의 의문은 확신이 되었다.

#2 성내 지하2층 오르도 레멘티아의 실험실

사일렌트: (사일렌트는 마치 모든것을 알고 있다는듯이 알렉세이를 마주한다.) “알렉세이 약해지지 말아라... 너에겐 사명이 있다 그들에게 영원의 안식 즉 정화를 통해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줘야 한다.

알렉세이: (알렉세이는 봉소드를 바닥에 내팽겨치며 말한다.) “그들은 동료였으며 친구였고 나아가... 가족들도 있었다...” 나는 그럴수 없다. 나는 정화자 이전에 인간이였고 그들과 함께하였다...”

사일렌트: (사일렌트는 떨어진 봉소드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등을 돌린다.)
“알렉세이... 탈정화 되었군... 너는 사명은 이제 끝났다... 너의 피는 이제 우리의 것이다...”

알렉세이: (사일렌트에게 거칠게 다가간다) 사명? 사명?!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은 왕국을 구원하는것이 아니였나? 왕국의 주인은 그들이였다! 망자들은 왕국의 일원이였어!! 무슨일이 일어난건지 말해 사일렌트!!

사일렌트: (수술도구와 장비들 속에서 커다란 주사기를 꺼낸 사일렌트는 알렉세이에게 다가가 팔을 집어들어 주사기를 꽂아넣는다.) “그들은 더이상 인간이 아니며 연금술평의회 재앙의 잔재이자 저주받은 피조물일 뿐이다... 물론 너도 이젠 그들과 다를게 없다... 더이상 힘은 필요없지...”

알렉세이: (하지만 알렉세이는 팔에 힘을주어 바늘을 부러뜨리고 주사기를 집어던진다.) “사일렌트 그대는 망자들의 고통에 침묵하려 하는가? 저주받은 고통 속에 버려진 그들을 외면하려하는가?”

떨어진 주사기를 바라보는 사일렌트는 비상버튼을 누르자 수십명의 오르도 레멘티아 사도들이 들이닥쳐 알렉세이를 둘러쌓는다.

사일렌트:(바닥에 떨어진 주사기를 다시 집어들며) “사사로운 동정심이나 연민따위는 잊어라 감정은 나약함을 증명할 뿐이고 이는 우리의 정화의식에 방해만 될 뿐이다. 너는 왕국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이다.”

오르도 레멘티아의 사도들은 수십개의 기계팔로 알렉세이를 순식간에 얹압하고 마취가스를 투입한다. 알렉세이가 암전해지자 사일렌트의 커다란 바늘이 알렉세이의 뇌에 들어가는 순간 알렉세이는 정화자 이전시절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간다.

알렉세이: (알렉세이의 몸이 요동치기 시작한다.) “사일렌트! 당신이 빼앗아간 인간의 고귀함 대신 얻은 이 불사의 육신또한!! 선조의 의지가 아닌 내 선택이었기에! 사명에 따르는 고통도 내겐 더 없이 영광스러웠다!”

알렉세이의 함성은 사도들의 기계장치를 다운시켰으며 완력을 사도들을 뜯어내기에 충분했다. 한때 잠시나마 대재앙을 일시적으로 봉인할 정도의 괴력을 가진 알렉세이기에 가능했다.

알렉세이: (우두커니 서서 사일렌트와 사도들을 냉소적으로 바라본다) “언젠가 머지 않아 너희들도 망자들의 고통과 절규를 마주했을때... 어떤 구원이나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인간의 허탈함과 무력감에 대해 느끼게 될것이다...”

바닥에 널부러져있는 사도들 사이를 비틀거리며 지나가는 알렉세이

알렉세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봉소드를 집어들며 뒤돌아본다.) “그리고...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오만함에 대해서도...” 언젠가 지긋지긋한 반복되는 사역을 끝낼 순례자가 도착하면, 나는 증명할것이고 말할것이다 너희들이 틀렸다고...”

-ep4감시자(에드라)

#1 성내 지하1층 감옥

좁고 낡은 감옥 힘없이 앉아있는 금발을한 여자의 뒷모습이 보인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다.

에드라: (불안 한듯 조조한 얼굴 그저 시선은 아래를 응실할뿐이다.)“그날을 아직도 잊을수 없다. 죽음을 넘어선 망자들의 무자비한 살육 그것은 대재앙의 시작이었다.”

에드라: “사람들은 공황에 빠졌고 팔레움 기사단의 수는 턱없이 부족했다. 왕국의 고귀한 혈통의 가문들이 먼저 하나둘 빠르게 몰살 되었고 빠르게 성외부까지 재앙이 덮치기 시작했다. 당시엔 어디부터 시작된건지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었다.”

에드라: “하지만 이내 왕국은 재앙의 중심에 연금술평의회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고...유명무실해진 팔레움 기사단을 뒤로 하고 오르도 레멘티아가 빠르게 정화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잠시 멈칫하며 밖에소리에 귀를 귀울인다)

에드라: “인간의 뇌를 잘게 조각내어 감정을 제어하고 그들의 신체는 인공생체실험으로 불사의 힘을 갖게 되었다...우리는 그들을 “그룸바운더”라 칭했다”

에드라: “왕국의 정보부에서는 강력하게 경고했었다...선조들의 은총을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것이 얼마나 커다란 죄악인가에 대해서...하지만 이미 왕국의 중앙 기관들은 힘을 잃었고...오로도 레멘티아의 광기에 사람들은 매료되었다.”

에드라: “우려 했던대로 망자들을 정화하는 “그룸바운더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탄락하고 점점 시스템의 제어가 되지 않았다. 어떤이들은 스스로 뾰술을 끊거나 어떤이들은 서로에게 칼끝을 겨눴다...”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점점 다가오는것을 느끼자 다급하게 출입문을 침상으로 막는다.

사시나무 같이 떨리는 몸, 바람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는 눈동자 새하얗게 질려버린 입술...여자는 창살문에 등을 돌리고 계속해서 혼잣 말을 중얼거린다.

에드라: “결국 왕국은 몰락했다...정화라는 이름의로 끝없는 파멸과 재앙이 반복되고있다.” (그녀의 손엔 작은 양피지 조각이 들려있고 쇠못으로 굵어서 쓴 글씨가 보인다.)

“누군가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겠지...그게 누군가가 될지는 스스로 깨닳게 될것이다...그날이 오면 우린 모두가 해방될것이다.”(양피지를 돌돌 말아 어딘가 숨긴다.)

이내 거칠게 쇠창살이 열리고 오르도레멘티아의 사도들이 여자에게 다가가 검은 복면을 씌운다.

이어 격렬하게 반향하던 여자는 끌려나가며 힘없이 손이 떨어진다.

-ep5집행자(알도르)

#1 망자의 마을 대광장

거대한 엑스큐셔너스 소드가 가슴에 박힌 채 단두대 앞에 서 있는 육중한 몸의 시체... 목이 잘린 채 허수아비처럼 쓰러지지 않고 서 있다. 그때 까마귀들이 한마리 한마리 모이기 시작하고 이내 시체의 피부와 잘린 목의 단면을 쪼아대기 시작한다.

한마리 한마리 늘어날 때마다 까마귀들은 시체의 몸속으로 점점 파고들기 시작했고 이내 시체의 몸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까마귀들이 시체를 완전히 뒤덮었을 땐 하늘에서 피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한 사내의 끔찍한 비명과 까마귀들의 울음소리가 섞이기 시작하면서 까마귀와 시체가 마치 한 몸처럼 섞이기 시작했다.

검은피부, 거대한 육체, 까마귀깃털의 망토 거구의 육체가 서서히 움직이더니 잘린 목을 자신의 목에 구겨 넣고 복면을 쓴다. 그리고 굵고 낮은 사내의 목소리가 훌려나온다.

알도르: (떨군 고개를 서서히 들어올리며 하늘을 바라본다.) “나는 왕국의 성검이였다...”
“나는 왕국의 심판이였다...” “나는 왕국의 의지였다...” “나는 집행자이다 움직이는 모든 것을 처형한다.”

(플래시백)

#2 성외각 대광장(망자의 마을과 같은 위치지만 재앙 전후로 분위기가 달라짐)

왕국의 대재앙 대다수의 왕국내부의 인물들은 죽거나 왕국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성 외각에 넓은 광장 한가운데 단두대가 놓여있다. 그리고 그 앞에 두사내가 마주보고 서 있다.

알도르: (양손으로 들고 있기 벅찬 거대한 엑스큐셔너스 소드(참수도)를 어깨에 짊어진 채 가래침을 내뱉는다.) “내가 처형한 것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었다... 그저 악마의 피조물이였고 곧 망자가 되어 살육을 자행할 벌레들이었다.”

미상의 글룸바운더: (그림자에 얼굴이 가려진 미상의 남자(알렉세이)가 뭉소드를 겨눈다.) “그들은 오르테누스의 욕망의 잔재이며 끔찍한 실험의 무고한 피해자들이며 거기다 그중 대다수는 무고한 자들이였다 그러나 너는 그들을 같은 이단으로 몰고 잔혹하게 몰살하였다”

알도르: (엑스큐셔너스 소드를 강하게 바닥에 내려치며) “내가 죄인이라고?! 그들이 무고한 자들이라고?! 그렇다면 그때에 그룸바운더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내가 왕국의 성검의 자격으로 망자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미상의 그룸바운더: (고개를 떨구고 시선을 피한다) "...나는 인간의 고결함을 잊지 않기 위해 그들의 사명을 내려놓았다...그러니 당장 무분별한 살육을 멈춰라 그렇지 않다면 내 손으로...정화해주마...넌 자격없는 불완전한 정화자일 뿐이다..."

알도르: "내가 불완전한 정화자라고? 크크큭 탈정화주제에...누구도 나를 정화시킬 수 없다. 그것이 설령 불사의 "그룸바운더"라고 해도...!"

알도르는 거대한 엑스큐셔너스 소드를 머리위로 들어올리고 알렉세이에게 달려든다. 거대한 소드는 몇번의 목직한 굉음과 함께 공간을 갈랐고 알렉세이는 충격으로 뒤로 퉁겨져 나갔다. 마지막 일격을 위해 엑스큐셔너스 소드를 끌며 돌진하는 알도르 그러나 알렉세이의 민첩함을 따라올수는 없었고 단칼에 알도르의 목이 베어진다.

알도르: (피를 분수처럼 뿜으며 자리에 멍춰선 알도르는 비틀거리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 땅에 엑스큐셔너스 소드를 박아 넣고 기대어 선다.) "평생을 개 취급 당하며 죄인들의 목을 베었다...그런데 그날부터 나는 충성스러운 왕국의 성검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받았다! 더이상 나는 더러운 사형집행관 따위가 아니었다.."

미상의 그룸바운더: "너의 충성은 왕국이 아니라 연금술평의회를 향해있었다...그들의 권세는 영원하지 못할것이며...마찬가지로...너처럼 그들도 왕국도 몰락하겠지..."

그룸바운더는 엑스큐셔너스 소드를 빼앗아 그의 가슴에 박아 넣고 그의 목을 참수해 버린다. 그렇게 그는 성을 떠나 사라진다.

알도르:(참수당한 머리 그의 입술은 조금씩 움직인다.)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나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나의 울음이 땅을 흔들고 나의 분노가 하늘을 뒤덮을것이다..."

-ep6또 다른 재앙(아그나르)

#1 성채 내부 지하2층 오르도레멘티아의 실험실

성내 지하 2층에 위치한 실험실 굳게 닫힌 철문사이로 남자들의 중얼거리는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사일렌트: (여러명의 오르도레멘티아 사도들과 원형으로 서서 손을 들고 기도를 외우고 있다.) "무저갱의 어둠속에서 길을 잊고 헤매이는 어린양에게 지식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한줄기 빛으로 인도하심에 그끝에는 어둠과 빛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불사의 힘으로 완벽한 왕국의 해방과 정화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들의 어린양이 비로서 불꽃의 사자로 다시태어나 왕국에 내린 재앙과 죄를 정화시키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음침한 골자기에서 헤맬지라도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오직 오르도 레디멘티아의 지식과 기도가 함께 하심이라"

어두컴컴하고 기괴한 실험실의 침대위에 앉아 각종 기계장치와 수액줄을 부착한채 앉아 있는 사내(아그나르)의 뒷모습이 보인다.

아그나르:(인상을 쓰며 귀찮다는듯이 귀를 후벼판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번이지...지겹군...빨리 시작합시다”

이어 그는 침대위로 드러 눕는다. 그의 뒤로 깔끔하게 하얀가운을 입은 오르도 레디멘티아의 사도들이들이 그를 내려다 바라 보고있다.

사도들이 남자를 향해 원형으로 줍혀오자 이어 그들의 끔찍한 외모가 보이기 시작한다. 기계도 아닌 인간도아닌 모습 안구, 뇌, 하관, 팔, 손 오르도 레멘티아의 사도들은 마치 생체에 기계가 이식된듯한 기괴한 모습이다.

아그나르: (인상을 찌푸리는 얼굴) “역겹군...내 잘생긴얼굴은 건들지 말아줘 그녀가 못알아보면 곤란하니까”

레디멘티아의 사도들이 사내에게 가스를 주입하고 사내는 동공이 풀리기 시작한다. 사도들은 각종 의료용 메스와 드릴등을 들고 누워 있는 사내의 신체를 개조하기 시작한다.

“키아이이잉 서걱서걱” 뼈와 살을 자르는 불쾌한 소음, 본격적으로 사내의 몸에 실험용 융합조작을 이식하기 시작하자 철가면(사일렌트)을한 사도의 선창에 따라 다같이 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한다.

사일렌트: “육체를 파괴하는것은 오직 영혼이다”
사도들: “오르도 레멘티아!”

사일렌트: “영혼을 파괴하는것은 오직 감정이다”
사도들: “오르도 레멘티아!”

사일렌트: “지식은 파괴되지 않는다.”
사도들: “오르도 레멘티아!”

사일렌트: “감정은 나약함을 증명하는것이다.”
사도들: “오르도 레멘티아!”

사일렌트: “감정은 영혼을 불안하게만들고, 불안한 영혼은 육체를 좀먹는다”
사도들: “오르도 레멘티아!”

사일렌트: “원죄를 구원하기 위한 지식과 사명이 완벽한 불사의 육체와 영혼을 만든다”
사도들: “오르도 레멘티아!”

기도문의 소리가 빨리지고 수술의 진행됨에 따라 아그나르의 동공이 지진이 일어난듯이 빠르게 흔들리고 심박이 불안정하자 긴장이 고조된다.

음향: 빠 빠 빠 빠 빠 빠 빠 빠-

사일렌트: (철가면속에서 눈빛이 반짝인다.) “감정이다...우리의 정화자가 흔들리고 있다...망각의 바늘을 가지고 와라!”

사도들은 분주하게 커다란 바늘을 꺼내고 누워 있는 사내의 뇌를 조각내어 짜깁기하기 시작한다.

아그나르: 끄아아아악!!! 크아악!!! 아아악!!! (끔찍한 비명소리가 실험실을 가득채우고 몸이 미친듯이 발작한다.)

사도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수십이 달려들어 사내의 몸을 제어하고 사일렌트는 계속 사내의 뇌에 달린 수십개의 커다란 바늘에 기계장치를 연결한다.

사일렌트: “고통을 이겨내는 자가 불사의 신체를 갖게 될것이다...너는 우리의 칼이자 방패이고 불사의 힘을 갖는 구원자이며 지식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될것이다!”

귀가 찢어질듯한 사내의 비명과 함께 사일렌트의 신호에 맞춰 사도들이 뇌에 연결된 기계장치의 에너지가 방출시킨다.

음향: “삐 삐 삐 삐 삐 삐 삐!!!!” (경고음이 점점 빠르게 울린다.)

사도:(기계화면을 확인하면서 다급한 표정) “정화자가 버티지 못할것 같습니다!”

사일렌트:(계속해서 아그나르의 머리에 달린 기계장치의 스위치를 올린다) “끝까지 의식을 멈추지 않는다 우리에게 두번째 실패는 없다!”

결국 기계와 사내는 폭주하고 엄청난 에너지 충격파가 폭발함과 함께 암전이 된다. 이윽고 희뿌연 먼지가 가라 앓고 침대위에 남자의 실루엣이 얼핏 보인다. 켜켜이 쌓인 먼지가 가라 앓고... 무너진 실험실에서 남자가 몸을 일으킨다. 어둠속에서 시퍼런 안광이 반짝 빛나고 이내 흐려진다.

얼마나 지났을까 알베르 기관의 기억관리자(서기관 레비아)가 무너진 실험실의 굳게 닫혀있는 문을 천천히 열자 난장판이 된 실험실안에서 한남자의 발끝이 서서히 보인다.

기억관리자_레비아: (팬을 꺼내들고 메모하는 소리와 함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알베르기관의 기억관리자가 혼잣말을 한다) “재앙을 막기위해 또다른 재앙이 시작된다...”

-ep7 마지막 기사들(루고스)

#1 파레데스성 성문앞

왕국의 성문앞 그앞에서 날카롭고 둔탁한 기사들의 소드가 바람을 가르는소리에 따라 날카로운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린다.

-오프사운드-

음향: “촤악~!!” 캉! 캉!

이윽고 외마디 비명 소리와 함께 한 기사가 힘없이 쓰러지며 무릎을 꽂는다.

미상의 기사: 끄아아아악!!

회색의 망토를 두른채 회색빛 말에 올라탄 기사가 피를 흘리며 무릎꿇은기사에게 다가간다. 창으로 쓰러진 기사의 얼굴을 들어 올리자 그늘지고 창백한 얼굴, 총기를 잃은 눈빛, 메마른 피부, 썩어가는 잇몸과 치아, 흘러내리는 고름, 역겨운 냄새의 뿐어내는 숨결이 불쾌하게 다가온다. 충성스러운 팔레움 기사단이라고는 볼수없는 모습이다 대대적인 재앙의 시작이후 대다수의 팔레움 기사들은 이처럼 타락한채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 맹목적인 살육을 자행 하고있었다.

회색망토의 기사: (창을를 들어올려 내리친다) “왕국의 은총과 은혜가 너희의 마지막 까지 함께 할것이다...”

음향: 서컹! 촉아악~ (검붉은 피가 우람한 중갑갑옷에 흘뿌려 진다.)

회색 망토를 휘날리며 성문앞을 막아서고 자세를 고쳐잡는다. 그 뒤로 쓰러진 타락한 기사들과 알수없는 시체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

개미한마리 보이지 않는 황무지 생명력이라고는 한올보이지 않는 지옥같은 고요함, 끝날것 같지 않은 재앙속 회색 망토의 기사는 혼란스러워 진다.

[플래시백] 나제르와 함께한 전투 이들은 뿔뿔히 흩어져 자신의 자리에서 왕국의 질서를 유지하기로 한다. 둑숨만 부지한채 겨우 도망치는 루고스 그리고 그 뒤로 몇몇의 기사들은 망자들에게 둘러쌓여 최후를 맞이한다.

루고스: (어느새 피부는 메마르고 창백해져있다. 명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왕국은...건재하다...영광은...돌아온다...나의 운명이 왕국이고 왕국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다...왕국에게 바친 나의 명예와 피, 나의 충성심이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것이며 곧 왕국은 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영광의 땅으로 나를 인도 하리라...”

음향: “휘리릭”

별안간 검은망토기사의 발앞에 카드가 하나 날아와 떨어진다.

루고스: 누구냐 모습을 드러내라! 자비를 베풀어 고통없이 죽여주마!! (검은망토의 기사는 순간 경계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만 인기척을 느끼지 못한다.)

검은 망토의 기사는 말에서 내려와 발밑에 떨어진 카드를 집어든다.

루고스:(카드에는 말을탄기사가 거꾸로 그려져 있고 death라는 글씨가 써있다.) “죽음...?”

에이라문트: (기사의 옆에서서 콧속말을 속삭인다) “운명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받아 들이세요 그것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어느샌가 검은망토의 기사 옆에 에이라문트가 서있다. 팔레움 기사단의 참모 어둠의 그림자속 시간의 공기를 훔치는 자...검은망토의 기사는 그의 인기척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럴만한것이 성문은 개미한마리 들어오지 못하게 굳게 닫혀 있었다. 어떻게 검은망토의 기사에게 접근한지 알수가 없다.

루고스: (인상을 쓰며 소리친다.) “에이라문트!! 간악하고 음침한 이단자!!! 그대는 무엇을 했는가! 왕국이 이지경이 될때까지!!! 수백년 찬란한 왕국의 역사가 무너질때 그대는 무엇을 했는가!!!”

검은망토의 기사의 분노의 함성은 지축을 흔들고 바람의 방향까지 바꾸어 놓았다.

에이라문트: “나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대들은 듣고싶은것만 들었을 뿐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대역시 이 질병에서 벗어날수 없을것입니다...”

에이라문트는 알수없는 말을 한채 어둠속으로 스미듯 사라진다.

-ep8죽음의 장인(하르크)

#1 - 파라데스성 성벽 내부 대장간

왕국 외각의 거대한 대장간 과거의 찬란한 역사와 위용을 뒤로한채 진열대는 텅비어있고 수많은 무기와 방어구들 부서진채 바닥을 퉁굴고 있다. 메말라버린 담금질통, 한참 불타올라야할 화덕과 주물은 차게 식어 있고 풀무엔 검은 잿가루가 날릴 뿐이다. 한켠엔 대장장이로 보이는 거대한 덩치의 남자가 여려가지 도구가 걸려있는곳을 바라보고 있다.

하르크: (낡은 나무의자에 앉아서 진열대를 바라보고있다)“...나는 왕국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그리고 인간의 신념을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오르도레디멘티아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신성한 왕국의 기사단 팔레움기사단을 도왔다...”

하르크: (괴로운듯 머리를 감싸쥔다.) “정말 최선을 다했다...팔레움기사단이 희망이라고 생각했다. 망자들의 곤질김과 무자비함을 생각하면 더 파괴적이고 강력한 기능을 하는 무기를 만들어야 했으니...”

남자의 시선의 끝엔 지금까지의 세월을 말해주는듯한 낡고 무뎌진 도끼 낫 망치 등등 수많은 공구들이 걸려 있고 그 위쪽엔 먼지한톨 쌓이지 않은 황금과 왕국의 직인으로 꾸며진 “master blacksmith”현판이 달려있다.

하르크: (자신의 두손을 바라보는 하르크)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그들역시 타락할줄은... 내가 만든 무기들이 왕국의 파멸에....무고한 시민들을 도륙하는데 이바지 할줄은...”

한참을 바라보던 사내는 벽에 걸려있는 거대한 도끼를 왼손에 쥐고 자신의 오른팔뚝을 망설임없이 내려찍는다.

하르크: (고통으로 인상이 찌푸려지고 입술이 파르르떨린다.) “어쩌면...나의 오른손은 재능은 선조들의 축복이아닌...죽음의 저주를 받은건 아닐까...”

흘뿌려지는 검붉은피 하르크의 얼굴은 그저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진채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자리에서 일어선 하르크는 달궈진 인두로 잘린팔의 단면을 지져 지혈을 하고 왼손으로 현판을 바닥으로 내팽겨친다. 산산조각난 현판은 그대로 화덕에 던져 넣고 풀무질을 해대자

순식간에 불씨가 타오르고 대장간 곳곳에 열기가 넘쳐 흐른다. 하르크는 대장간 곳곳에 기름을 뿌리기 시작한다. 이미 달궈진 대장간의 열기에 기름이 지글거리며 끓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불이 불기 시작했다. 하르크는 그저 멍하니 서서 불타고 있는 자신의 대장간을 바라본다. 자신의 모든 것이 였던 대장간이 완전히 화마가 집어삼키자 하르크는 미리 챙겨둔 자신의 짐과 손도끼만을 챙기고 대장간을 빠져나온다 하지만 망자들이 곧 하르크에게 덤벼들었고 하르크는 망자들과 맞서 싸운다. 불타오르는 대장간 망자들의 짐승같은 울부짖음과 피를 갈구하는 듯한 공격 하르크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힘이 빠지기 시작한다. 포기하려던 찰라 한 사내가 망자들을 순식간에 도륙낸다 지칠대로 지친 하르크는 힘없이 앉아 그를 바라보고 눈이 서서히 감긴다. 얼마나 지났을까 하르크는 조용한 저택에서 눈을 뜨고 앞에 서있는 사람들은 다름아닌 알렉세이와 서기관 레비야였다. 둘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였지만 아무말없이 사내의 몸을 일으켜 세운다.

레비야:(하르크에게 물을 건내며)“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르크:(고개를 숙인채)“내가 망가뜨린 걸 되돌리고 싶었다... 올바른 상황으로 되돌리고 싶었어... 단지 그것 뿐이야”

-ep9죽음과 삶(레이이나)

#1- 성채 내부 3층 오르도 레멘티아의 실험실

레이이나: (오프사운드) “나는 살고싶었고 또 죽고싶었다... 나의 고통은 오롯이 나많의 것이 아니였다...”

마치 시공간이 멈춰버린듯한 공간 빛하나 들지 않는 성의 최심부 포르말린이 가득 담긴 거대한 유리관안에 레이나가 몸을 웅크린채 있다.

레이이나:(알몸으로 몸을 웅크린채 겨우 반쯤 뜯눈) “또왔네...”

어디서 들어왔을지 모르는 시궁창 쥐 한마리가 레이나의 유리관 앞으로 다가온다. 이내 조금 맴돌던 시궁창쥐는 구석구석 냄새를 맡으며 먹이를 찾는다. 이내 고기조각으로 보이는것을 발견한 시궁창쥐는 얼굴을 먹이로 향하자 레이나는 시궁창쥐의 관심을 끈다.

레이이나: (유리관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여길봐...”

잠시나마 레이나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던 시궁창쥐는 고기조각을 향해 갔고 순간 한 남자의 발에 짓밟혀 그대로 죽어버린다.

레이이나: (유리관을 쓰다듬으며) “괜찮아... 괜찮을거야 다시만날테니까”

뚜벅 뚜벅 시궁창쥐의 피가 묻은 한남자의 다리가 보이고 레이나의 앞에 선다.

레이이나: “미안해, 어쩌면 너의 기억을 빼앗아 버린건 나의 오만함과 욕망으로 인한 나의 저주였을까...”

사내는 유리관안에 있는 레이나와 봉인되어 있는 수많은 정화자들의 시체를 본다.

레이나: (서있는 남자를 바라보며) “그날 이후 네가 처음으로 나를 바라보던 날... 넌 월듯이 기뻐했어... 하지만... 곧 내가 무슨 짓을 한건지 깨닳았었지...”

사내는 레이나가 있는 유리관으로 다가와 레이나와 손바닥을 마주한다.

레이나: “네가 날 구원하려고 한순간 세상은 멈춰버렸어...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내가 시작이였고 너는 끝이여야만해”

- 아그나르의 사명 -

#1 잊혀진주택

아그나르: (어두운 복도 우두커니 서있는 아그나르_독백) “그날 이후 난 죽음을 초월했다. 그것은 내 영혼을 바친 최후의 항전이였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재앙, 잊혀지지 않는 악몽, 반복되는 고통... 난 그것들을 끝내기 위해 기꺼이 정화를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반복되는 현실에 이 재앙은 끝나지 않을 것이란 걸 알게 되었다. 내가 끝내려던 재앙은 서서히 나의 죄악으로 더럽혀져 어느덧 내 영혼과 육신을 지배했다...”

남쪽의 잊혀진땅, 무너진 왕국 외각의 끄트머리에 “망령의 자취”이라 불리우는 조악하지만 거대한 저택이 있다. 어두컴컴한 저택안 로비 벽난로의 모닥불은 깨질듯 말듯 위태롭게 작은 불씨를 태우고 있고 쇠창살로 단단하게 막혀진 창밖엔 을씨년스럽게 비가 내리고 있다. 그덕에 농눅한 습기와 물안개가 잊혀진땅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누르고 있는 것 같다.

#-2 잊혀진주택 내부 베스티지 훌

알렉세이:(가죽이 갈라지고 뜯어진 낡은 소파에 앉아서 담배를 태우고 있는 알렉세이 말없이 커튼사이 창밖으로 무너진 왕국의 성을 바라보고 있다.) [음향] “치익 스으읍 후”

알렉세이:(담배재를 털며) “틀림없군... 또 다시...”

아그나르:(아그나르는 무표정한 얼굴로 피곤에 찌들어 있는지 자신의 몸을 물에 젖은 걸레를 널어놓듯이 소파로 엎드린다.) “뭐가 틀림 없다는거예요”

알렉세이:(언짢은 표정으로 아그나르를 바라보며 팔짱을 낀다.) “...늦었군.”

아그나르: “불렀으면 어디에 있다고 말을 해줘야지, 어떻게 압니까 당연히 찾는 데 시간이 걸리죠.”

알렉세이: “잊었나... 저택이라고 안심해선 안돼 숨죽이고 있어야하지”

아그나르: “늙은이 쓸데 없는 걱정은...”

알렉세이:(알렉세이는 창문을 향해 다가가 커튼을 손으로 젖힌다.) "...성이다. 성이 울기 시작했어."

아그나르: "성??...끝난것 아니였나 분명히 그때..."

알렉세이: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것 같다...안에서 무언가 깨어나고 있어."

아그나르:(자세를 고쳐 잡고 소파에 앉아 턱을 괴는 아그나르 잠시 생각에 잠긴다.)"..."

알렉세이: "...이번에도 심상치 않다 물론...그곳은 여전히 네 취향은 아니겠지"

아그나르: (아그나르는 소파에 뒤로 기대어 고개를 젖힌후 알렉세이를 바라본후 무표정으로 배를 쓰다듬으며 손가락으로 이를 쑤신다.) "그럼 얼른 갔다와야지, 다녀오면 진수성찬이 기다리고 있겠죠?"

알렉세이: "매번...네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널 고치느라...감자 님은것도 다행인줄 알아"

소파에서 일어나 장비를 착용하고 필요한 물품을 챙기는 아그나르 구석에 창고로 보이는 문을열고 먼지가 잔뜩쌓인 지도를 쟁긴다. 창고 이곳 저곳을 둘러 보지만 쓸만한 물건은 보이지 않는다.

아그나르: "완전 개털이네...성 안에 쇠불이라도 남은게 있길 바래야겠네요."

알렉세이: "하르크가 보여줄것이 있던것 같던데..."

아그나르: "오 그래요? 하긴 이 고물 쇠불이로는 그것들을 한방에 죽일수 없지, 새로운 장비라 설레는걸"

그때 서재의 문이 열리며 두꺼운 책을 안고있는 레비아가 거실로 나온다.

레비아: "아그나르 즐거워 보이네? 이제 즐기는건가? 정화 행위 자체를?"

아그나르: "뭐야 왜이렇게 날카로워요?

테이블에 책을 내려놓은 레비아가 펜촉을 꺼내 잉크를 먹인다.

레비아: "아닙니다. 즐거워 하는것도 설레이는것도 감정이죠 어쨌든 지금상황에 지옥같은 성으로 가는사람치곤 즐거워 하는것 같아서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궁금했을뿐이에요"

아그나르: "거참 은근 기분이상하게 만드신다니까 그 책을 너무 많이 봐서그래요
밖에나와서 까마귀도 보고 망자들 시체도 보고 그래야 좀 현실을 살아가지 그러다가 저 쪽방에 에드라처럼 ...참...아닙니다"

레비아는 아무말 없이 아그나르를 노려보고있다. 아그나르는 머쓱해하며 레비아가 있던 서재의 구석에서 벽을 보고 앉아있는 에드라의 눈치를 본다.

아그나르: "그러니까 뭐 화이팅을 해달라 이런거죠 별뜻은 없습니다. 그저 망자들의 비명소리나 공명이 가끔 아무렇지 않을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니 뭐 이렇게라도..."

알렉세이는 아그나르의 어깨를 가볍게 문쪽으로 믴다 알렉세이의 눈치를 본 아그나르는 저택문을 나선다.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아 이마를 짚는 알렉세이 레비아는 묵묵히 커다란책에 무언갈 쓰고있다.

알렉세이: “저녀석 머저리 같지만 차라리 그편이 좋겠지...”

레비아: “어쨌든 머저리라도 감정은 있으니까요”

#2 잊혀진주택 외부 하르크의 대장간

잊혀진주택의 뒷편 거대한 굴뚝이 보이는 저택 외벽은 단단한 무쇠와 철 그리고 가시못으로 둘러져 있다. 철문앞에서 아그나르는 문을 두드린다 “쿵! 톡톡 쿵쿵!...쿵! 톡톡 쿵쿵!” 이들에겐 익숙한 박자다.

[음향]“쿵 킁 키이잉~”

아그나르: “안녕하십니까. 저한테 주실게 있다고?”

하르크: “여전하군 애송이 보여준다고 했지 준다고 안했다.”

아그나르: “뭐야...오라가라 바쁜 사람을...참네”

아그나르는 툤투거리며 하르크를 지나 저택안으로 들어간다. 저택안은 작은 대장간처럼 너저분하다

한쪽구석에 작은 소파와 식탁 정도가 전부다 좁은 공간엔 쪽잠을 잘수 있을 정도다.

아그나르: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실 작정이에요? 망자들이 득실거리는 폐허랑 다를게 없잖아요”

하르크: “닥쳐 내가 만든세상에 내가 살고있을 뿐이야, 이리와서 이걸 한번 들어봐”

하르크는 방금 막 제작한듯한 회색빛을 띠는 브로드 소드를 아그나르에게 보여준다. 한눈에 봐도 단단하고 강력한 잘만들어진 검이다.

하르크: “망자들에게서 나오는 핵에너지를 사용할수 있는 각인을 새긴 검이다. 단순히 베는것 이상의 힘을낼거야”

아그나르: “무슨힘이는데요?”

하르크: “그건 나도 모르지, 네가 어떤 특성의 망자를 처리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 모든건 너에게 달려있지”

아그나르: “해줄거면 제대로 해주지 결국 그전엔 똑같단 소리잖아요”

하르크는 브로드소드를 던지듯 아그나르에게 전달해주며 낡아빠진 소파에 기대어 술을 한모금 마신다.

하르크: “멍청이, 도대체 몇번을 설명해줘야하나, 각인을 새기는건 쉬운일이 아니야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썩 가지고 꺼져”

아그나르: “알겠어요 그나저나 번번히 감사합니다 하핫 매번 공짜로 받아서 저도 아저씨처럼 대머리가 되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르크:“공짜가 아니다!!! 닥치고 꺼져 머저리!!!”

브로드소드를 몇번 휘둘러본 아그나르는 매우 만족한듯 장난끼있는 웃음 지어보인다.
이어 하르크의 저택을 나와 망토를 두른채 울부짖는 성을 향해 나아간다.

하르크:(하르크는 담배를 태우며 멍하니 불씨가 남은 화덕을 바라보고 앉아 생각에
잠긴다.)“멍청이같은놈...나의 과오를 청산할수있는 기회가 너에게 달려있다니 제길”

chapter1 망자의 마을 - 알도르-

#1- 황무지길

저택을 벗어난 아그나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진창을 걷고있다. 저택을 나설때의 가벼운
발걸음은 단 몇걸음만에 무거워졌고 표정은 굳은채 낯빛은 어두워 졌다.

아그나르: [독백]_(굳은얼굴 무표정하다) “이게 벌써 몇번째인지 더이상 셀수도 의미도 없다.
불과 얼마전일도 기억나질 않는다 그저 언제나 그랬듯, 악취를 내뿜는 성 그리고 그곳에서
쏟아지는 망자와 썩은것들을 베려가는길 낯설면서도 익숙하다...”

망자의 마을 골목골목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수가 없다. 그저 성을 향해 한발자국
한발자국 내딛을 뿐 어떤 희망도 기대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순간 아그나르의
발자국소리위로 다른 발자국소리가 불규칙하게 들린다.

음향: [오프사운드]_(길을걷고 있는 아그나르 뒷모습) “터벅...터벅...터...” “지이익 턱
지이익 턱”

이미 아그나르는 무언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다. 몰아치는 비바람 나부끼는
넝마들 무너져버린 폐허 어둠속에서 반짝이는 푸른 안광...망자들이다. 비릿한 피비린내와
역한 고름냄새, 발 아래 질척이던 건 진흙길이 아니라 망자들의 썩은 육신에서 나온
오물들이였다.

찰나의 순간 아그나르는 망자들에게 둘러 쌓여있었고 하나둘 아그나르 앞으로 달려들었다.
아그나르의 피와 살을 갈망하는 그들의 표정은 공포와 절망 그리고 분노 슬픔 다양한
감정이 섞여있다. 하지만 아그나르는 혼존하는 최고의 글루바운더 빠른 회피기동으로
망자들을 피한 뒤 바스타드소드를 꺼내어 순식간에 머리를 베어낸다.

음향: (망자들의 공격을 피하고 횡으로 한번 종으로 한번 칼을 휘두르는 아그나르)“촤악~!
촤악~!”

음향: (아그나르의 발밑으로 떨어지는 망자들의 잘린 신체)“터억! 쿵! 후두둑!”

하지만 망자들의 기억의 조각을 정화하지 않으면 머리가 잘려도 조금만 있으면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하기 때문에 방심할수 없다. 아그나르는 달려드는 망자들의 육체를 단숨에
조각낸후 재빠르게 망자들의 기억의 조각과 공명하여 정화시켜야한다.

머리가 잘린망자: (바닥에서 꿈틀거리며) “꺼억...꺼어억...꾸르르륵...꾸륵”

아그나르: (기억의 조각과 공명하여 정화시키는 아그나르 얼굴을 살짝 찡그린다) "...조용히 정화 돼라...시끄럽다..."

정화된 망자의 육체는 꿈틀거리다 그즉시 한줌의 재가되어 흘러버려진다. 이내 남는 것은 망자들이 인간이였을적 가지고있던 몇개의 유품이 바닥에 남아있을뿐이다.

아그나르: "과거 신분에 비하면...건질건... 하나도 없군..."[망자2에게서 어떤 문양의 펜던트를 줍는다]

망자2:(마치 음악을 노래를 부르는듯 망자의 신음소리) "으...으으음...으음....으으음"

아그나르: (멈칫하고 망자를 쳐다본다.) "...뭐지? ...익숙한 멜로디다..."

망자를 향해 다가가는 아그나르, 기억의 파편이 공명한다.

event1 처음으로 아그나르의 반복되는 과거를 보여주는 영상 이벤트
[아그나르의 기억속, 얼굴이 보이지 않는 남자와 함께 마을 광장으로 보이는곳에 서있는 아그나르 둘은 매우 친숙해 보인다.익숙한 의상 그리고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어렵잖 기역난다. **fade out**

fade in 같은 장소 하지만 재앙이후 어둡고 축축하고 음산한 분위기 앞선 장면에서 친숙해 보이는 인물이 망자로 변해있음 1인칭 시점의 화자에게 망자가 달려들지만 칼로 목이 잘리며 망자가 된채로 서서히 죽어감]

아그나르: "이기억은 뭐야...? 저주받은 괴물이...인간이였다고...?"

망자2: "음...으으음....음음....으으음...."[망자는 레이나의 가족중 한명]

아그나르: "아니지 너희들은 저주받은 피조물일 뿐이다...이런 알박한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음향: "콰직"

수십개의 기억의 파편이 아그나르와 공명한다. 수많은 기억, 추억, 감정 아그나르는 기억의 파편을 모아 소각하여 정화 한다. 마지막으로 남은 아그나르와 겹치는 망자의 기억 조금 망설이던 아그나르는 찜찜함을 뒤로 한채 소각하여 정화 한뒤 성을향해 걸어간다.

#2-망자의 마을 대광장

어느새 비는 그쳤고 메마른 마을광장에 다다른다. 먹구름이 낀 회색빛 하늘 날리는 먼지와 나부끼는 까마귀의 깃털 그어느 때보다 강한 망자의 기운이 느껴진다. 아니 망자와는 좀 다르다 단순히 기억의 조각이 공명하기전 떨리는 그런 기시감이 아니다. 아그나르는 긴장하며 주위를 살핀다. 안개 사이로 망자들의 안광이 보이고 켜켜이 쌓인 안개가 그의

시야를 방해한다. 기분나쁜 망자들의 그로울링 한껏 예민해진 아그나르는 브로드소드의 검을 꺼내 칼끝을 정면을 향해 겨눈다.

망자들: (점점 어둠속으로 물러난다) “그르륵...그르륵...그륵...”

아그나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 뭐지 왜 달려들질 않는거지??”

어떤이유에선지 망자들이 전진하는 아그나르를 따라오지 않고 서서히 멀어지며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다.

아그나르: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이상한데 강화때문인가? 이자식 들이 쫄았나? 하지만 숨어도 소용없지...너희들을 정화시켜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게...나의 사명이니...”

아그나르는 빠르게 망자들을 향해 달려든다. 아그나르의 검이 망자들에게 달기전 망자들의 뒤에서 거대한 검이 휘둘려지고 망자들을 산산조각 내기 시작한다. 아그나르는 허리를 활처럼 뒤로 꺾어 겨우 피한다. 단한번의 공격으로 수십마리의 망자는 마치 으깨지듯이 바닥을 나뒹굴었고 그 위력은 실로 대단하였다. 뒤엉킨 망자들의 조각난 시신과 기억의 조각들은 검은색 깃털로 뒤덮힌 거대한 사내의 몸속으로 흡수되기 시작했다.

아그나르: (허리를 짚으며) “뭐야...? 재앙에서 살아남은자가 또 있었나? 정체가 뭐냐”

알도르: (망자들을 흡수한채 그자리에서 기지개를 켜듯 몸을 일으켰다) “...나는 왕국의 집행자 알도르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육중한 몸의 사내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인다.

검은색 깃털로 만들어진 거대한 망토. 그리고 뒤집어쓴 검은 복면 전형적인 사형집행인의 모습을 하고있다.

아그나르: “왕국의...집행자라...어쨌든 네놈도 망자들을 정화하는걸 보면...나랑 같은 목적을 가진건가?...다른 정화자가 있을거란 생각은 못했는데...들어본적도 없고 뭐 어쨌든 상관없겠지”

아그나르는 알도르를 지나친다 순간 아까 느꼈던 엄청난 에너지가 망자들 무리가 아니고 알도르 옆음을 알아채고 걸음을 멈추고 알도르에게 말을 건다.

아그나르: (긴장한채 브로드 소드손잡이를 잡은채 결눈질로 본다) “성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알고 있는게 있나?”

알도르: “...내가 알고있는건...나의 사명 뿐이다...”

아그나르: “사명이라...모든 존재에겐 끝이 있어야하지...죽지 않는것 저주다. 난 이 저주받은 왕국에 끝을 내 해방시켜주는것 그것이 나의 사명이었지...그런데 넌 살아남은자인가...죽지못한자인가...?”

알도르: “죽인다...죽여...광장에 있는 모든것을 죽여라...”

아그나르: “!?”

알도르는 아그나르의 목을 향해 커다란 엑스큐너서스 소드를 휘두른다. 찰나의 순간 아그나르가 피했지만 거대한 칼날이 얼굴을 스치며 입부터 볼까지 반쯤은 찢어진다.

아그나르: (입에서 쏟아지는 피를 막으며) “크흑!! 타락한 망자인가?!?!”

알도르:(아그나르를 향해 거대한 검을 겨누고 돌진한다) “나는 왕국의 성검이다...전부 죽인다.”

보기에도 2미터는 족히 넘어보이는 알도르의 거대한 엑스큐셔너스 소드 오히려 몽둥이라고 보는게 맞을지도 모른다. “쿵! 쿵! 쿵!” 알도르의 육중한 움직임에 땅이 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듯 흔들린다. 하지만 아그나르는 물러설 생각이 없다.

아그나르:(아그나르는 재빠르게 다시 브로드소드를 고쳐 잡고 방어자세를 취한다.) “멍청한녀석!! 왕국은 무너진지 오래다!!!”

음향:(브로드소드와 엑스큐셔너스 소드가 불꽃을 튀며 부딪힌다) “쾅!!!!”

육직하게 수직으로 내리치는 알도르의 엑스큐셔너스 소드를 양손으로 받아내는것은 성공했지만 충격으로 땅이 파이고 아그나르의 손과 온몸이 떨리기 시작한다.

알도르: (아그나르를 힘으로 계속누른다)“나는 왕국의 심판이다...죽인다”

아그나르: (힙겹게 버티고있는 얼굴 칼날이 점점 밀려 얼굴쪽으로 내려온다) “왕국은...!
옛날에 무너졌다고!!!”

알도르의 검을 옆으로 밀어낸 아그나르는 웅크린 탄력을 이용해 아래에서 위로 수직으로 점프하며 알도르에게 일격을 가한다.

알도르: (아그나르의 일격은 알도르의 망토가 마치 새의 날개처럼 펼쳐 지며 검을 막아낸다.)“나는 왕국의 의지이다.”

아그나르:(빠르게 착지한후 알도르의 사각으로 빠진다) “넌 왕국과 함께 묻혔어야 할 타락한 망자일 뿐이다!!!”

아그나르는 멈추지 않고 빠르고 강력하게 수차례 칼을 휘두른다. 육중하지만 느린 알도르의 공격 패턴은 단순했다 횡과 종으로 크게 휘두르며 전진만 할뿐이었다. 아그나르는 사각에서 알도르의 하단 무릎 관절을 베기 시작했다.

음향: (정신 없는 아그나르의 공격 알도르는 따라가지 못한다) “촤악! 촉악!”

음향: (알도르가 무릎을 꽂고 주저 앓는다) “쿵!!”

알도르: (알도르는 휘청거리는 몸을 엑스큐셔너스 소드로 지탱하여 넘어지지 않고 버틴다.) “나는 집행자이다 움직이는 모든것을 처형한다...”

아그나르: (차가운 눈빛 감정없는 얼굴) “...너는 더이상 왕국의 집행자도 성검도 아무것도 아니다 ...”

아그나르는 빠르게 뒤로 이동해 알도르의 후두부 아래 경추쪽에 브로드소 드로 강하게 찔러 넣는다.

아그나르: (알도르의 힘이 빠지자 검을 비틀어 목의 척추뼈가 부러지는 것을 느낀 아그나르는 검을 빼어든다.) “이상하군... 이렇게 의식이 또렷한 망자는 처음이다...”

음향: (알도르의 복면이 벗겨지고 입에서 검은 피가 쏟아진다.) 촉아악~!

깃털로 뒤덮힌 날개는 힘없이 늘어지고 알도르의 반응이 없자 아그나르는 칼을 거두고 뒤로 물러선다. 그런데 바닥에 쏟아진 알도르의 피에 아그나르의 피가 몇 방울 떨어지자 난데없이 나타난 까마귀때가 하늘을 뒤덮고 알도르의 머리 위를 맴돈다.

까마귀때: (알도르의 머리위를 빙빙돈다) “꺄아아악 까악 까아아악 까아악”

놀랍게도 까마귀에 둘러 쌓인 알도르가 다시 일어서고 그에게서 다시 강한 망자의 기운을 느낀다. 알도르의 구멍이난 목에 까마귀들이 한마리씩 기어들어가자 알도르는 검은 피를 토해내기 시작하고 이내 상처가 아문다.

알도르:(살며시 고개를 드는 알도르는 허공에 코를대고 킁킁거린다.)
“이 피냄새... 익숙하다... 기억나는군... 그 때 그자인가...?... 크크큭... 이단자... 이번에야 말로 왕국의 의지로 널 처단해주마...”

달빛에 비친 알도르의 얼굴은 끔찍했다. 양눈은 썩어서 함몰되어 있었고 검은 잇몸은 뾰족한 이빨에 상처가나 입에선 피와 고름이 섞여 흐르며 지독함 냄새가 났다. 알도르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커다란 망토를 날개처럼 펼치자 숨겨있던 알도르의 몸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마치 찰흙으로 반죽해 놓은 것처럼 알도르의 몸엔 수많은 망자의 썩은 신체와 장기들이 얹혀서 파묻힌채 정화돼지 못하고 불완전하게 잡혀 있었다.

아그나르: (잠시 주춤거리는 아그나르) “여태껏 만난 적 없는 망자들과는 다른 레벨이다... 숨통을 끊었지만 기억의 조각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디에...”

아그나르는 본능적으로 알도르의 기억의 조각이 다른곳에 깃들여 있음을 눈치챈다. 보통은 머리 피부 안구 등에 깃들여 있는데 알도르는 조금 달랐다.

알도르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공격하는데 거침이 없었다 하지만 알도르와 다르게 아그나르는 고통을 느끼며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다.

아그나르: (뒷걸음질 치며 겨우 알도르의 공격을 막아내며 힘겨워 한다.) 알도르의 “어딜까 어디에 알도르의 의지와 영혼이 갇혀있는 걸까...”

거기다 아그나르가 알도르의 몸을 브로드소드로 공격 할때마다 알도르의 몸에 흡수된 망자들의 기억의 조각이 아그나르에게 공명하여 그들의 고통이 아그나르에게 공유되어 체력 저하와 집중력이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장기전으로 갈수록 아그나르가 불리해지는 상황 아그나르는 알도르의 기억의 조각이 어디에 있는지 집중하기 시작했다. 목에 걸고 있는 쇠사슬? 까마귀의 날개? 심장? 잠깐 방심한사이 알도르의 거대한 엑스큐너셔스 소드가 아그나르의 어깨에 깊게 박혔다.

아그나르: 크아아악!!!! (살과 근육이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아그나르의 나지막한 신음이 떨려나오고 피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순간 알도르의 기억이 빠르게 아그나르와 공명하며 스쳐간다.

event1

[마을 광장 앞 사형장 인간일때 알도르의 모습이 보인다. 그의 앞으로 손이 뒤로 끌여 무릎 꿇린 채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 이미 수십구의 시체가 광장에 넓부러져있고 까마귀떼는 개걸스럽게 시체를 파먹고 있다. 곧이어 연금술평의회의 원로들의 모습이 보이고 무릎꿇고 있는 알도르를 둘러쌓아 어떤 의식을 진행하자 알도르는 몸을 부르르떨다가 괴음을 지른다. 이어 알도르의 영혼이 땅에 밖혀있는 엑스큐셔너스 소드에 사로잡히고 까마귀떼가 알도르의 눈알을 파먹기 시작한다. 한동안 발작을 하던 알도르는 잠잠해지자 스스로 망토를 뒤집어 써 눈을 가린채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한다. 이어 거대한 엑스큐셔너스 소드를 들고 사람들의 머리를 내려치기 시작한다. 순식간에 수십명의 사람이 처형 됐고... 광장은 피로 물들기 시작한다. 이후 연금술평의회의 원로들이 자리를 떠나고 알도르는 광장에 남아서 움직이는 모든것을 참수하기 시작한다. 망자들은 물론이고 도망가는 왕국의 시종, 왕족, 일반시민까지 알도르에겐 인간의 영혼을 찾아볼수 없었다 그저 거대한 엑스큐셔너스 소드만 시퍼런 검광을 일으킬뿐 이후 광장엔 개미새끼한마리 남지 않았지만 알도르는 그저 광장을 지키고 서있을뿐이었다. 이내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고 광장에 남아있던 알도르는 글룸바운더(아그나르)에 의해 참수를 당한다.]

알도르의 기억과 고통이 아그나르에게 전해지자 아그나르는 참수인의 검 엑스큐셔너스 소드에 알도르의 영혼이 갇혀있는것을 알게 된다.

아그나르: (놀란표정) “피와 살육의 맛을본 검에 영혼이 갇힌거였나... 저 자들의 정체는 뭐지...”

아그나르는 있는힘을다해 반대쪽손을 들어 알도르의 양손을 잘라버리고 거대한 엑스큐셔너스 소드를 파괴한다.

알도르:(무릎을 꿇은채 아그나르를 바라보며 서서히 육체가 한줌의 재로 타들어간다.) “이단자여... 나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왕국이 무너지지 않는한 나는 죽지않는다...”

알도르가 정화돼자 알도르에게 흡수당했던 다른 망자들의 기억의 조각도 아그나르에 의해 정화된다. 대다수 망자들은 알도르가 관련된 살육의 현장이 보였지만 그중에서 처음보는 여자가 아그나르를 바라보며 마치 길을 안내하듯이 손으로 한장소를 가르키고 있는것을 본다.

아그나르:(잠시 지쳐 쓰러졌던 아그나르는 놀라며 정신을 차린다.) “그여자... 누구지... 마치 기억의 조각속에서 날 바라보는듯했어... 익숙한데”

불사의 힘을갖고 있던 아그나르는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잠시의 휴식으로 몸은 스스로 재생되어 회복하였고 옆에는 알도르의 검은색 핵 에너지가 공중에서 부양하고 있었다.

아그나르:(아그나르는 핵 에너지로 손을 가져가자 몸으로 흡수되기 시작하고 알도르의 강력한 힘이 온몸을 감싸기 시작한다.) “알렉세이가 말한게 이거군... 그나저나... 이녀석의 힘 굉장한데... 엄청난 파워다...”

브로드소드를 들자 핵에너지가 검에 각인이 되어 빛나기 시작한다. 어느정도 컨트롤 하는 방법을 익힌 아그나르는 다시 성을 향해 걷기 시작한다.

chapter1 버려진 마켓 -베라크-

#1-망자의마을 버려진 마켓

어느덧 마을광장의 중심부 다행히 다른 망자들은 보이질 않는다. 어쩌면 광장의 망자들은 알도르에게 다 흡수당했었는지도 모를일 아그나르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걷다보니 알도르와의 전투에서 본 여자가 가르킨 마켓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켓안으로 조심스럽게 진입한 아그나르는 낡은 상자에 앉아 생각에 잠긴다.

아그나르: “그나저나...알도르의 의식속에서 있던 글룸바운더는 누구지... 나에게 그자냐고 물었는데...그간의 정화에서 알도르를 만난건 처음인데...기억나지 않는다...”

순간 아그나르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망자들이 갖고있는 기억의 조각이 공명할때와 마찬가지로 망자들의 원한 공포 고통 분노가 조금씩 느껴지며 머리카락이 쭈뼛거리기 시작했다.

음향: 콰앙!!! (빠르게 브로드소드를 꺼내어 뒤쪽의 잡동사니가 쓰여있는곳을 내려친다.)

굉음과 함께 잡동사니들이 박살나고 그뒤로 숨겨져 있던 반쯤 부서진 쪽문이 보인다. 문너머로 보이는 공간에 안광이 여러개가 빛나기 시작하자 아그나르는 긴장하며 뒤로 물러선다. 발자국 소리 와 함께 어둠속에서 망자들이 다가오기 시작한다.

음향: “저벅 저벅” “저벅 저벅”

아그나르: (인상을 찌푸리며) “이것들은 항상 몰려다니는군 ”

의외로 아그나르의 눈앞에 나온 망자는 한명이었다. 그는 알도르처럼 온몸에 반짝이는 보라색 돌들과 눈알들이 박혀 있었다. 다른점이라면 매우 외소한 체격에 움직임은 느리고 손발은 길고 삐쩍말라 형겁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아그나르: (조금 경계를 품다) “...너도 알도르처럼 타락한 망자인가...?”

베라크: (겁에 질린듯 몸이 파르르 떨린다) “아...알도르...부정한 이름이다...나...나는 다르다...나는...그와는 다르다”

아그나르: (검으로 베라크의 몸을 건드린다.) “...그래? 그럼 니몸에 흡수된 망자들은 뭐지?”

베라크는 양상한 손으로 자신의 몸을 내려다 보며 떨리는 손으로 더듬어 본다.

베라크: (뒷걸음질 친다) “이...이건 아니다...내가 한것이 아니야...”

아그나르: (목에 칼을 겨누며 노려본다) “무슨소리야 설명하지 못하면 너역시 정화된다”

브로드소드에 검은 검기가 위협적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베라크는 뒷걸음질 치다가 몸을 부들부들 떨며 주저 앉는다.

베라크: (머리를 감싸쥐며 공포에 떨고있다) “나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그것은 악몽이고 저주야...”

고통스러운듯 신음소리를 내며 웅크린 베라크의 몸에서 보랏빛색 돌이 점점 피부를 뚫고 비집어 나오기 시작한다. 주먹만한 돌이 땅에 굴러 떨어지고 베라크는 고통으로 신음한다.

아그나르: (아무생각없이 돌을 집어든 아그나르는 순간적으로 돌과 공명하기 시작한다.) “이건 뭐지?”

event1

[성의 지하2층 오르도레멘티아의 실험실, 침대위의 베라크는 고통스러워 하며 몸부림친다. 기계장치의 경고음 피와 불꽃이 튀는 기괴한 인체실험 그리고 정제된 망자들의 기억의 조각 베라크의 몸은 기억의 조각과 공명하며 흡수하기 시작한다. 일그러지는 얼굴 기괴하게 변하는 신체구조 그렇게 베라크의 비명이 점점커지며 암전된다.] 몇가지의 에피소드 추가

event2

[성의 지하2층 오르도레멘티아의 실험실, 침대위의 아그나르는 고통스러워 하며 몸부림친다. 기계장치의 경고음 피와 불꽃이 튀는 기괴한 인체실험 그리고 끔찍한 기계사도들에게서 일어나는 신체 개조 현장. 아그나르의 비명이 점점커지며 암전된다.] 아그나르의 얼굴은 보이지 않음

event3

[성의 지하2층 오르도레멘티아의 실험실, 아그나르의 발밑에 분해된 실험체들이 잔뜩 쌓여 있다. 그중엔 아그나르의 친구로 보이는 이들도 있다. 짧은 스틸컷으로 아그나르와 몇몇 캐릭터의 훈련및 생활 모습이 오버랩됨 그리고 레이나의 발끝이 나오고 암전된다]

아그나르: “뭐지? 이건 기억의 조각인가? 왜 이상한 기억들이 공명하는거지?”

베라크: “...글리프...기억...감정...원하지 않는다...계속된다...”

아그나르: “너 무슨일이 있었던거냐 아니 왕국의 성에서 무슨일이 일어난거지 ?”

베라크: “... 난 나약했고 그저 실험실의 생쥐였다...그들에 의해 나는 원하지 않는 기억이 흡수됐다...끔찍한 악몽이지... 고통과 분노 슬픔 증오만 넘치는 망자들의 기억이 내영혼을 헤집어 놓고 잠식하고 파괴하기 시작했지...그래서 살기위해 그 악몽을 토해내고 있다...글리프...저주받은 돌이지”

아그나르: “내가 본게 진짜라면 지독하군...무엇보다...나라면 너같은 얼굴로는 살수없을거야, 당장 그렇게 만든놈들을 반쯤 죽여놨을텐데 그들은 누구지? 그리고 다시

성이 움직이고 있다는건 알고있겠지? 성을 움직이고 있는자들이 누구인지 무언가 알고있나?”

베라크: “...난 아무것도 모른다 아니 기억해낼수 없어 망자들의 기억이 내기억을 짓누른다...하지만 ...너는좀 이상하군...기억하지 못하나...그럴리가 없는데...내게 장난을 치는건가...너의 질문을 알고싶다면...내 글리프를 가져가라...그리고 점술사를 찾아라...”

아그나르: “...점술사라...그렇다면 안내해라 넌 점술사가 어디있는지 알것같은데”

베라크: “난 이곳을 벗어날수 없어...달빛이...가려질때...성 안으로...하지만 그곳은 영혼이 파괴된곳이다...”

아그나르: “도통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군...일단 성으로 가봐야겠군.”(글리프를 조심히 백팩에 넣은 아그나르는 성문을 향해 걷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알수있는것은 기억의 조각에서 봤던것처럼 익숙한 장면들이 아그나르와 관련되어 있다는것 뿐이다. 그 외 수많은 망자들의 기억, 알도르, 베라크의 이야기정도 언제부터 다시 성이 움직였는지 끝나지 않는 이 재앙의 시작은 누구였는지 아직은 실마리를 찾을수 없었다. 우선 성에 들어가서 베라크가 말한 점술사를 찾으면 그때 글리프를 이용할 계획이었다.

#2- 파르데스 성 성벽 외곽

광장을 지나 성문앞에 도착한 아그나르, 여전히 성안에서는 기분나쁜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고있다. 먼저 성문을 열기위해 올려져있는 다리의 체인을 브로드 소드로 내려쳐 끊어버린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체인이 빠르게 풀리기 시작했고 거대한 굉음과 함께 성과 연결된 다리가 내려왔다.

흘끔 먼지가 내려 앓고 아그나르는 성문을 향해 다가갔다.

하지만 성문앞엔 검은말을탄 기사가 아그나르를 기다리고 있었다.

chapter1 성으로 가는길 도개교 -루고스-

#1- 파르데스 성 성벽외곽 도개교

루고스: (도개교의 중앙으로 나와서 길을막는 루고스) “거기 멈춰라 이방인 이곳은 파레데스 왕국의 성문이다. 더이상 접근하지마라...왕국은 죽은자의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다.

아그나르: “...이봐 난 우선 죽은자가 아니다. 난 더러운 망자들을 정화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루고스: (창을 빼들어 경계를한다) “그거라면 걱정할필요없다 이곳은 나의 영역이다 왕국은 건재하고 이곳은 깨끗하다.”

아그나르: (루고스의 등뒤 성을 가르키며) “이봐 넌 저소리가 들리지 않나? 미안하지만 성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망자들은 성으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다”

“루고스: “네 말은 좀 언짢군...마치 왕국이 재앙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그 말은 왕국이 재앙의 중심(적절한 단어로 교체) 이란 말인가?”

아그나르: (칼을 뽑아들고 루고스에게 다가간다.) “정확하게 그럴지...그러니 길을 비켜라 내겐 사명이 있다.”

루고스: “오...사명이라...더러운 피를 가진 자가 사명이라...게다가 타락한자의 힘을 갖고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는군 자신이 어떤 상태 인지도 모르면서... 무슨 자격으로 행한단 말인가 너에겐 자격이 없다...더러운 자여”

아그나르: “글쎄 중요한 건 왜 나만 살아남았는지...그리고 반복되는 왕국의 재앙을 끝내기 위해 움직일 뿐이다...재앙을 끝내기 위해선 성을 무너뜨려야 한다.”

루고스: “...더러운 이단자여...보시다시피 성은 단단하고 왕국은 건재하다 나의 운명이 왕국이고 왕국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다... 왕국의 수호자로써 왕국을 해하려는 자 누구든 처단한다...”

(맹렬하게 달려드는 루고스)

아그나르와 루고스는 도개교 가운데서 각축을 벌인다. 루고스의 리치가 긴 창공격에 조금씩 밀려간다. 알도르와 다르게 루고스는 말을 이용한 빠른 기동력으로 승부한다. 치고빠지는 찌르기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아그나르는 빠르게 말의 아래쪽으로 슬라이딩해 말의 머리를 잘라버린다. 말에서 떨어진 루고스는 머리가 잘려 방향을 잡지 못하는 말을 안쓰럽게 쳐다보며 어루만진다.

루고스: “오랜 시간 함께였지만 여기까지인가 보군...걱정 말아라 우리의 영광은 돌아온다...너의 피와 충성심이 왕국의 영광을 재현하는데 양분이 될 것이다...” (목이 떨어져 허떡이는 말의 숨통을 끊어버리자 그 자리에서 말과 반인 반수의 형태로 루고스의 몸이 결합된다.)

아그나르: “모든 존재엔 끝이 있어야 하지...너와 네 말... 왕국의 저주속에서 내가 해방시켜주마”

루고스에게 접근하는 아그나르 여전히 루고스의 기동력을 빨랐지만 아그나르는 다리를 차례차례 하나씩 잘라버린다. 이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된 루고스지만 끝까지 성문을 등뒤로 한채 창을 들어 아그나르에게 저항한다.

루고스: (힘이 빠진듯 창을쥔 손에 힘이 풀리고 창을 내려놓는다.) “너역시...타락한 저주 받은 자 아닌가?” 스스로를 고귀하다고 여기는 건가...

아그나르:(루고스의 심장에 브로드 소드를 꽂아 넣으며) “난 너희 완 다르다...너흰 죽지 못한 자들이고...난 살아남은 자다...”

루고스: “넌 가짜다... 아니라면... 죽음으로 증명해라...” (루고스 역시 남은 힘을 짜내 아그나르의 심장에 창을 박아 넣는다)

아그나르:(피를 토하며 무릎을 꽂는다) “크윽!”

루고스: (기억의 조각이 떨어져 나오고 몸이 서서히 잿가루가 되어 날리기 시작한다) “넌 성문을 열 자격이 없다...”

아그나르: (의식이 점점 흐려지며 쓰러진다) “젠장...”

루고스의 기억의 조각이 아그나르에게 공명한다.

event1

[루고스의 이야기_도개교 앞에서 망자들을 쓸어버리고 있는 루고스 하지만 이내 망자들이 성문을 밀고 쏟아져 나간다. 최후까지 버티는 루고스 그때 뒤쪽에서 망자가 루고스를 공격하고 루고스는 말에서 떨어지고 황급히 뒤를 돌아보자 루고스의 표정은 놀람과 동시에 슬픈표정을 한다. 망자들 사이에 둘러 쌓여있는 또 다른 기사(나제르와의 전투에서 팔이 잘려 도망간 기사)그는 이미 완전히 타락해 버렸고 한눈에 봐도 그들은 망자와 일반인을 구분하지 못하고 닥치는 대로 살육을 자행하고 있다. 루고스는 그에게 다가가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루고스를 공격한다. 타락한 기사는 망자와 같이 고통을 느끼지도 지치지도 않았다. 맹렬한 공격에 루고스는 지쳐쓰러졌고 마지막으로 팔레움 기사단의 성스러운 기도문을 외운다. 신성한 기도문이 타락한 기사의 귓가에 맴돌자 타락한 기사의 정신이 드는듯 했고 루고스는 희망을 엿본다. 순간 타락한기사의 머리가 잘리며 루고스의 눈앞에서 피를쏟아내며 쓰러졌고 그 뒤에는 미상의 글룸바운더가(아그나르) 서있다. 피를 뒤집어쓴 루고스의 슬픔과 분노에찬 얼굴로 글룸바운더에게 달려들며 아그나르가 정신을 차린다.]

아그나르: (놀란 표정으로 허겁지겁 일어난다.) 허억!!!!

이번에도 루고스가 정화된자리에 루고스의 에너지 핵이 부양하고 있다. 아그나르는 손을 뻗어 루고스의 에너지 핵을 자신의 몸으로 귀속시킨다.

아그나르: (가볍게 제자리에서 뛰어보며) “몸이 깃털처럼 가볍다...왠지모르게 지구력도 좋아진 느낌이야...”

아그나르는 자리에서 일어나 성문을 바라본다. 어느샌가 성문을 활짝 열려 있었고 성안으로 들어간다.

chapter2 3장의 카드 -에이라문트-

#1- 파르데스 성 성벽 내부

아그나르: (자신의 심장을 내려다 보며 더듬는다.) 그나저나 어떻게 된거지...분명 내 심장이...멀쩡하다...하르크 갑옷의 힘인가...아니면 알도르...?

에이라문트:(어느새 아그나르의 옆으로 다가와 귓속말을 한다) “누구의 힘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운명이지요”

아그나르: (화들짝 놀라며 브로드 소드를 뽑아 겨눈다) “어느틈에?! 죽은자인가?! (한참 바라보다 뭔가 눈치챈) 당신 흑시...?”

에이라문트: (미끄러지듯 아그나르의 정면에 마주선다) “네 맞습니다. 아마 저를 찾고 있으셨을 텐데요”

아그나르: (칼을 내려놓으며) “당신이...점술사?”

에이라문트: “무엇이 궁금하신 겁니까?”

아그나르: “다시 망자들이 들끓고 성이 움직이고 있다...그보다 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건지 뭔가 알고 있나?”

에이라문트: (품속에서 카드를 꺼낸다) “글쎄요...저는 그저 떠돌뿐입니다... 뭔가 알고싶다면 그저 이 카드가 알려 주겠지요...”

아그나르:(품속에서 글리프를 꺼내어 듦다.) 아 혹시 광장 마켓에서 이상한녀석을 만났는데 이런걸 토해내더군 글리프 라고 하던데 이 돌속에 저장되어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알수있나?

하하...모든걸 카드가 알려줄순 없습니다...다만...어디로 가면 알수있는지 방향을 제시할뿐입니다”

에이라문트는 아그나르에게 세장의 카드를 내민다. 그리곤 각각의 카드위에 글리프를 올려두자 카드와 글리프가 반응하며 알수없는 심볼이 생긴다. _(이벤트 진행시 랜덤하게 나제르, 하르트라, 벨페르, 네크리아, 오르테누스 를 상징 하는 심볼)

아그나르: “이 문양은 뭐지?”

에이라문트: 성안에는 여러가지 길이 있습니다. 길마다 새겨져 있는 문양을 따라 간다면 당신이 알고싶은 진실로 다가갈수 있을겁니다.

아그나르: “그런데 넌? 왜 날 도와주는거지?” (무표정한 얼굴로 에이라문트를 바라본다)

에이라문트: “글쎄요 저는 그저 알고 싶을뿐입니다. 제가 본 미래의 수많은 가능성중 단하나의 출구를...이번에야 말로 당신이 그문을 열수 있는지... “(흔잣말 하듯이 말끝을 흐리며 속삭인다._복선선)...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당신과 카드의 선택에 달려있거든요”

아그나르: (시선은 바닥에 머물러 있다 이어 에이라문트의 발밑을 바라보다 흠칫 놀라며 에이라문트를 바라본다) “우리가 만난적이 있던가?...그럴리 없지 그보다 너 미래를 볼수있나? 어떻게 그게 가능한거지?”

에이라문트: “당신이 기억의 조각을 통해 과거를 보는것 처럼 저 역시 카드를 통해 미래를 볼수 있습니다. (아그나르의 얼굴앞에서 카드를 요란스럽게 섞고 정리하길 반복한다.)

아그나르: (카드를 바라보며) “...흔란스럽군...그런데 글리프와 공명한 카드가 안내한길이 잘못된 길이면? (고개를 들어 다시 에이라문트를 바라본다) 너역시 다른류의 타락한자일수도 있지않나?”

에이라문트:(아그나르에게 가까이 얼굴을 내밀며 옆은 미소를 지어보인다) “카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당신이 듣고 보고 싶은것만 말하죠”

아그나르: (인상을 징그리며 고개를 돌려 피하고 주변을 둘러본다) “그런데 여기엔 수많은 망자와 타락한자들이 들끓는데 어떻게...”

에이라문트: “그들은 반복되는 시간의 흐름에 갇혀있는 자들입니다...“저는 시간의 흐름에 면역되어 있기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으며 어디에도 있을수 있죠...”(아그나르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나타났다를 반복하다 곧 눈앞에서 사라진다.)

아그나르: (허공을 바라보며) ”결국 망자란 말인가”

#2-파르데스 성 성채 내부 1층_부엌,하인들의 숙소

아그나르는 카드의 문양을 따라 길을 나서기 시작한다. 성벽 내부를 지나 성채 내부로 들어가자 여러개의 문이 보인다. 그중 카드의 문양이 빛나고있는 문앞으로 다가간다. 그시절 하인들의 숙소로 보이는곳 아그나르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망자들이 쏟아져나온다. 그들은 외부의 망자들과는 다르게 자신이 살아생전 욕망하던것과 신체가 섞여 변이채가 되버린 상태였다. 좀더 끔찍한 모습에 아그나르는 인상이 징그려졌지만 망자들을 처리하며 나온 기억의 조각에서 힌트를 얻어간다.

[event1_부엌_도살업자, 하인, 웨이터 등의 변이체 망자들의 기억_오르도레멘티아의 실험실로 도망간자들]

“off sound” 성의 꼭대기3층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비명소리
얼마안가 2층으로 올라가는 문이 열리며 쏟아져나오는 망자들과 기사단들, 밖으로 도망가야한다는 외침에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외부로 나가는 문을 막고있는 기사단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하지만 웬일인지 기사단은 길을 열어주지 않고 성밖으로 못나가게 한다. 뒤로는 망자들과 기사단이 쏟아져나와 닥치는대로 서로가 서로를 살육하기 시작했고 공포에 휩쓸인 사람들이 강제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기사단들은 사람들과 망자들을 구분하지 않고 성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는 모든것들을 살육한다. 이를 지켜보던 소수의 살아남은 사람들은 기사단과 망자들을 피해 지하1층 그리고 지하2층으로 도망을가고 망자들이 출입하지못하는 오르도레멘티아의 실험실 문을열고 들어간다. **fade out]**

[event2_병영_팔레움 기사단의 하급기사들 기억_버려진 기사

“off sound” 끔찍한 기사들의 비명소리

“extreme cu” 놀라서 눈을 뜨는 기사의 얼굴 동공이 흔들린다”

“full shot_“top view”” 바닥에 엎드려서 벌벌 떨고있는 기사 주변엔 선혈이 낭자하고 시체조각이 굴러다닌다.

“over lap” 여러명의 기사들이 엎드려있는 하급기사를 지나쳐 도망가고 나제르가 하급기사를 일으킨다. 하지만 하급기사의 움직일수 없는상태였고 나제르는 그를 들쳐 엎고

좁은 통로로 달린다. 2층으로 내려가는 문앞 웬일인지 나제르는 더이상 움직이지 않고 하급기사가 다급하게 나제르의 어깨를 흔든다. 이내 코앞까지 다가온 망자들은 하급기사를 물어뜯기 시작하고 하급기사는 고통에 몸부림친다. 나제르는 하급기사의 손을 놔버리며 하급기사와 망자들을 3층 꼭대기탑문으로 밀어버리고 문을 닫는다.
“over lap”_“close up” 명한 하급기사의 얼굴 어느덧 밝은 빛이 기사의 얼굴을 비춘다. 기사가 실눈을 뜯어 위를 바라본다.
“full shot” 문앞에서 있는 누군가의 실루엣_(back light) 여러명의 오르도 레멘티아 사도무리들이 조각나버린 하급기사의 신체를 수습해서 지하2층으로 내려려간다. 실험실 위에 올려져있는 하급기사 사도들이 그를 둘러쌓는다_fade out]

[event3_하인들의 기억_연금술평의회의 실험피해자들

성채내부 1층 하인들의 숙소, 하인1은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일과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런데 얼마전 주인에게 불려간 친한 몇명의 하인들이 몇일째 모습을 감추었다. 걱정을하며 돌아올지 모를 그들의 침상을 정리해준다. 그때 성의 지배인의 하인1을 찾아오고 그의 안내를 받아 몇몇의 하인들이 다같이 2층 그랜드홀 다같이 이동하게 된다. 그곳엔 연금술평의회 사제들과 자신들이 모시는 귀족들이 여럿 모여있었고 그들의 환대에 조금 어리둥절해 한다. 왕국에서 일어나는 전염병 대해 하인들에게 알려주며 3층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인1을 포함한 몇몇의 하인들은 본인들이 곧 버려질거라고 생각했지만 귀족들은 하인들에게 먼저 3층으로 대피하라고 자비를 베풀고. 대부분의 하인들은 아무 의심하지 않고 감사해 하며 3층 꼭대기 탑으로 먼저 올라간다. 그러나 곧 그들은 그곳에서 끔찍한 관경을 목도한다. 연금술평의회의 실험 그리고 그곳엔 모습을 감춘 하인들의 끔찍한 인체 실험을 당한채 기괴한 망자가 되어있었고. 곧이어 그들역시 연금술평의회의의 실험물이 된다.

아그나르: “젠장...그들은 악마의 피조물도 더러운 저주받은것들도 아니였다....결국 타락한 망자들은...결국 사람이였던거잖아... 익숙했었다 그들의 기억 또렷하진 않지만...도대체 왜 저런 실험을...”

#3-파르데스 성채2층 팔레움 기사단의 예배당_진입시 대규모 전투

아그나르: “지금은 타락해버렸지만 그대들은 한때 명예로운 기사단들이었다...죽지못하는 그대들에게 정화로써 끝을 내 평안한 안식의 축복을 주는게 내가 해줄수있는 전부다다...”

-타락한 망자들(기사들) 과의 전투 후

[event_기사의 명예]

성채 내부2층 기사단의 예배당 3층최상층에서 일어난 실험으로 인해 망자들이 쏟아져 내려왔고 기사단이 막기 위해 출동한다. 하지만 그들이 본망자들은 자신이 사람이었을때 같이 동거동락 하거나 죽마고우었던 귀족이나 명문가문의 자제들이었다. 결국 그들은 왕국과 기사의 명예를 위해 그들을 살육하고 마음에 병이 생긴 기사단 몇몇은 예배당에서 타락한채 글룸바운더들에게 죽음을 맞이한다.]

아그나르: “과거에도...다른 글룸바운더에게...정화당한것인가...? 그런데 왜 이들은 소멸되지 않고 불완전한 상태로 계속 머물며 고통받는거지...젠장 알 수있는게 없다.”

#4-파르데스 성채내부 3층 최초의 실험실(레이이나와 첫대면)

효과음: “띠리링....띠링...띠리링”(황무지길에서 만난 망자가 흥얼거리던 멜로디)
레멘티아 실험실의 문앞을 막고 있는 레이나의 발끝이 보인다

아그나르: “?!”(본능적으로 칼을 거둔다.)

레이이나: (아무 말 없이 바라보는 레이나 순식간에 사라진다)

레이이나를 쫓아가는 아그나르 3층에 여러 가지 방을 지나 레이나가 사라진 방문앞에 멈춰선다.

아그나르: 이곳은...(문에 설명하게 새겨진 연금술평의회 심볼을 어루만진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처음보는 실험실이 보인다. 하지만 아그나르는 익숙한듯 손길이
이끄는대로 실험실의 불을켠다.

효과음: “탁” “치지지직” (불꽃이 튀며 반짝거리던 등이 켜진다)

성의 상부층 불빛이 켜진 내부는 끔찍했다. 연금술로 인해 분해된 시신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다. (위의 파라데스성 내부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도망간 생존자들의 시신)

아그나르: “끔찍하군.....”

레이이나: “이곳은 모든 재앙의 시작점...길잃은 나귀들의 마굿간이다...”

아그나르: “...무슨 말이야...알아듣게 설명해 왜 날 이리로 끌고온거지?”

레이이나: “넌 그저 길잃은 나귀다... 부정하고 우둔한 짐승... 너의 죄와 우리들의 짐은
짊어져야 할 운명이지...” (미끄러지듯 뒤로 물러나며 어둠속으로 사라진다)

아그나르: “잠깐!!!”

레이이나에게 다가가려던 아그나르는 바닥에 널려 있는 실험체 시신에서 나온 피와 접촉하자
공명하여 그들의 기억이 머리속에서 스쳐간다.

[event_

초창기 오르테누스의 실험에 의해 희생당하는 명문가 사람들의 장면, dissolve

팔레움 기사단과 초창기 망자들의 살육전 장면 어둠속에서 이를보고 있는 오르테누스
dissolve

마지막 팔레움 기사단과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지하로 내려가는 오르테누스 장면 dissolve]

아그나르: “저녀석(오르테누스)을 찾으면... 이 끔찍한 재앙에 대해 알 수 있겠군... 지하로
내려간다”

#5- 파르데스 성채내부 2층 그랜드홀_나제르와 전투

미로같은 3층을 계단을 빠져나와 2층 메인 계단으로 내려온 아그나르.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지만 왜인지 길이 막혀있고 그랜드홀의 문이 열려있다.(글리프의 문양이 반짝임)

아그나르: "? 글리프가 반응하고 있다...무언가 있나?"

아그나르가 문으로 다가가자 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수많은 죽은 타락한 기사들이 서있다(예배당에서 죽인 타락한 기사들)

나제르: "우리 형제들에게 치욕적인 죽음을 내린 것이 그대인가"(어둠속에서 빛을 발하는 아라크)

아그나르: "뭐 안타깝지만 어쩌다보니...그렇게 됐군 내가 그들에게 해방을 시켜줬지. 영원한 고통속에서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수고비라도 줄텐가? 뭐 쓸만한게 별로 없어서..."(팔레움기사단의 은으로 만든 브로치 몇개를 손에서 굴린다)

나제르: "...수고비라...넌 내 형제들에게 불명예스러운 안식을 남겼다..."

아그나르: "성스러운 팔레움기사단이란 녀석들이 타락한 채 반복되는 지옥속에서 고통받는 게 더 불명예스러운 게 아닌가?"

나제르: "넌 네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너에게 줄 것은 불경한 자의 손에 죽은 내 형제들의 복수의 칼날 뿐이다."(아그나르에게 달려든다)

아그나르: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잘 알려주지 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 죽지 못하고 망자가 된 타락한 자들에게 해방의 축복을 허락하는 글룸바운더 아그나르다"(칼을 뽑아들고 맞서 싸운다)

[event]_나제르와의 전투

나제르는 앞전의 기사들과는 다르게 성기사로써 다양한 마법을 사용한다. 마법 공격에 별다른 내성이 없는 아그나르는 접근하는데 애를 먹지만 루고스의 스피드를 이용하여 접근하는데 성공한다. 재빠르게 알도르의 힘으로 변환시킨 아그나르는 일격을 날리고 나제르는 주춤거리며 무릎을 꿇는다.

나제르: "네 몸엔 그들과(망자) 같은 피가 흐른다, 그들을 심판한 검이었으면서... 어떻게... 이제와서 살아있는 척을 하느냐?

아그나르: "살아있는 척이 아니라 멀쩡히 살아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상처들이 고통을 어떻게 느끼겠어...아퍼.. 지금도 아퍼 계속 아플 거고... 젠장"

나제르는 최후의 수단으로 왕국의 수호기도를 통해 죽어있던 기사단을 일시적으로 살려내 전투에 참여시킨다. 쓰러트려도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는 기사들로 인한 수적 열세에 빠진 아그나르는 생각을 바꾸어 나제르에게 빠르게 접근하여 나제르의 본체를 공격한다. 나제르의 목에 걸려 있는 수많은 기사단의 브로치가 아그나르로 인해 파괴되자. 수많은 기사들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이내 나제르도 힘을 잃고 무릎을 꿇는다.

아그나르: “타락한 기사여 더이상 무의미한 싸움 그만두고 형제들의 곁으로 돌아가라...”

나제르: ”네놈에게...마지막이라니...치욕적인 죽음이다...내 형제들에게 죽음의 은총과 죽복으로 구원할수 있는 자격은 오직 나뿐이다...”

아그나르: “그런 자격따위...죽음이 정해져 있어서 죽지못한다면 그건 죽복이 아니지 너역시 마찬가지다...내 역할은 너를 더이상 고통받지 않게 해주는게 전부다...구원은 남은 자의 몫이지...”

나제르가 소멸되면서 기억의 조각이 아그나르와 공명함

[event_-과거 회상 쓴 여려명의 글룸바운더와 팔레움기사단등이 실험관안에 있는 레이나를 파괴하기 위해 달려들지만 미상의 남자가 막아내고 놀살시킴, 이후 불타는건물에서 레이나로 보이는 여자를 안고나오는 한남자의 실루엣-어렴풋 사내의 얼굴이보인다.(아그나르)]

아그나르: “저게 나라고?...그럴리 없잖아 내가 왜 글룸바운더와 기사단들을...저 여자 하나때문에...?”

#6- 성채 내부 지하1층

지하1층으로 내려온 아그나르는 역시 망자들을 제거해 나간다. 지하로 내려갈수록 변이체 망자들이 많아졌고 더욱 강력해졌다. 쏟아지는 망자들을 피해 문이 열려 있는 한 감옥으로 들어가 잠시 쉬는 아그나르 그곳에서 어떤 기억(에드라의 기억 얼굴은 보이지 않음)과 공명을 하고 틈사이에 끼어있는 에드라의 양피지를 발견한다.

아그나르: “(에드라의 양피지 읽고있는 아그나르) “[스스로 깨닳게 될것이다...그날이 오면 우린 모두가 해방될것이다.](#)” 뭐라는거야...? 그나저나 굉장한 악필이군...글씨는 그사람의 얼굴이라던데...”

[event1 감옥_사일렌트와 에드라와 연관]

망자들과 전투후_감옥의 죄인들을 가지고 사일렌트가 인간병기화 실험을 시작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망자들과 팔레움 기사단에게서 도망간 사람들)]

아그나르: “아무도 원치 않은 성전이었나...그들에게 선택지가 있었던걸까 그리고보니 기억이 나질 않는다 내 첫 성전 기억이 조각나버린것같다...정화의 시작이 기억나질 않는다 아니 끝은 있는걸까..?”

[event2 우물_오르테누스 베라크, 사일렌트와 연관]

망자들과 전투후_연금술평의회의 의해 몰락한 가문의 힘없는 왕자 베라크 실험체가 되지 않기위해 우물로 뛰어들어 자살하지만 결국 사일렌트에 의해 시신이 실험실로 옮겨짐(베라크 ep에서 기억의 조각 애피소드와 연결)]

아그나르: “그녀석...지독한 운명이다...마음대로 죽을수도없는...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손으로 결정하지 못하는것 또한 비극...나같은 불사화 글룸바운더도 어쩌면 망자들과 다를게 없는건 아닌가..?”

[event3 식품 저장고_오르테누스, 바르드르스와 연관]

망자들과 전투후_ 오르테누스는 바르드르스를 이용해 식품저장고에 어떤 독약을 풀어서 저주를 내리고 명문가들이 죽어나가게 만든다. 바르드르스는 이후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위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래를 완성한다. 오르테누스와 함께 죽어가는 명문가 사람들이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사라진다.]

아그나르: “저때가 재앙의 시작같군...연금술평의회...선량한 사람들에게 무슨짓을 한거냐...왕국의 성이 울부짖는게 이상한일이 아니다...수많은 원훈과 원망이 성을 집어삼키고있다...”

#6-1 성채 내부 지하2층 으로 내려가는 문앞_사일렌트

망자들과 전투에 힘들어하는 아그나르 글리프의 반응을보고 한 문앞에 멈춰 선다.

아그나르: “젠장 너무 지쳤어...지금이라면 하르크의 나무껍질스프도 두그릇은 먹을것 같아...”

사일렌트: “오...너는 좀 다르군.” (off sound)

아그나르: “응? 이젠 환청까지 들리는건가?? 피를 너무 쏟았어..젠장”(주위를 두리번거린다)

사일렌트: “피의 흐름이 이상하군 정화된 피가 아니야...” (바닥에서 검은 피가 솟아오르며 사일렌트의 모습이 나타난다)

아그나르: “아...네놈이군...(사일렌트의 기억이 하나둘 떠오른다. 지끈거리는 머리를 쥐어뜯는다)”

사일렌트: “네 몸속의 세포는 날 잊을순 없겠지...”(완벽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사일렌트 앞전의 지하1층 망자들의 기억속에서 본 사내이다)

아그나르: “뭐라는거냐 미치광이 넌 원치 않는 사람들을 불사화시키고 강제로 성전에 참여시켰다...”

사일렌트: “당장 정화의식을 계속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어보이는군...과거에도 몇번 이런일이 있었지...아무래도 네 피를 뽑아 혼합물을 만들어내어 힘을 추출해 더 강하게 만들어야겠어”

아그나르: “미친놈인가? 피를 훔쳤는데 수혈을 해도 모자를판에 피를 뽑아간다고? 과거의 그룸바운더들이 꽤나 미쳐버린 모양이던데 다 이유가 있군”

사일렌트: “오해는 하지마 어디까지나 길을 잊고 헤매이는 어린양에게 과학지식의 은총을 내려줄뿐이니까...지금보다 더 강해지고싶다면...대가를 치뤄야지”

사일렌트는 빠르게 접근하여 아그나르의 피를 뽑아간다. 이후 자신의 몸속으로 피를 주입한후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입을통해 검붉은 피를 쏟아내 비커에 담아낸다.

사일렌트: “마셔라...정화자들의 피는 원죄를 이긴 자의 증거지...”

아그나르: “미친놈...? 너같으면 이걸 마시겠냐? 무슨 병에 걸릴줄 알고? 아무리 불사자라고 해도 역병에 걸려 죽을것같군” (질색하며 코를 막고 뒤로 물러난다)

사일렌트: “저아래 무저갱의 어둠속은 차원이다르다. 네가 진정 정화자의 피가 흐르는 글룸바운더라면 그 힘을 제대로 써야겠지...이 재앙을 끝내고싶지 않나? 모든 잔재를 정화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평안의 축복을 내리고싶지 않나!?”

아그나르: “글쎄 이젠좀 헷갈리는군 망자들을 정화하는게 과연 진정 그들을 위한것인지...인간의 온전함은 온데간데 없는...”

사일렌트: “모든건 너에게 달려있다...그들을 영겁의 시간속에서 고통받게 할것인지 정화시킬것인지...그렇게되면 나도 피의 계약에서 자유로울수 있겠지”

사일렌트는 아그나르에게 정제된 피를 주입시키고 유유히 사라진다.

에너지를 회복한 아그나르는 글리프를 따라 지하2층으로 내려간다.

#7- 성채 내부 지하2층 영겁의 연단_하르트라, 벨페르, 네크리아

(귀족 가문출신, 팔레움기사단, 성의 하인 등이 연금술평의회의 오르투네스의 의해 변이체가됨_레이나이벤트에서 봤던 명문가 사람들_하르트라, 벨페르, 네크리아)

[event#_괴물채와 조우하자 기억의 조각과 공명하는 아그나르 그 속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된다.

3층의 복도 많은 명문가의 사람들이 오르테누스를 만나기위해 기다리고있다. 그러나 아그나르는 기다리는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 오르테누스의 멱살을 잡는다. 오르테누스의 옆은 미소 fade out]

각 괴물체와의 전투후 몸속에서 두루마기가 나온다.

[event1 하르트라_석궁_명문가사람의 피해자_복수,파괴충동]

피 실험체: 미상의 여자

실험내용 안구적출 및 신경 융합

N0_0 과 융합 성공_no1 하르트라

유리에 비친 자신의 동공을 바라보는 아그나르 백발의 머리에 동공의 색이 다르다(오드아이)

[event2 벨페르_파이크, 할버드, 폴액_팔레움기사단의 피해자_회피, 자기방어]

피 실험체: 미상의 남성

실험내용 근육 및 신경계 합성

N0_0 과 융합성공_no2 벨페르

온몸에 나있는 자신의 흉터를 어루만지며 해부도에 그려진 그림을 바라본다.

[event3 네크리아_건틀렛_초창기 명문가의 하인 피해자_공포,분노]

피 실험체: 미상의 남성

실험내용 팔다리 및 신체 융합

NO_0 과 융합성공_no3 네크리아

피부색이 다른 팔다리를 바라보는 아그나르

두루마기의 끝단에 아그나르의 이름이 보인다.

원재료 실험체 코드명: 아그나르

분류: 폐기처분

두루마기를 끝까지 다 읽은 아그나르는 두통이 밀려오고 어떤 기억이 떠오른다.

[event4_아그나르의 진실_기억_연금술평의회 연단에 누워있는 아그나르의 조각난 모습 그 주위로 피실험체들의 신체 조각이 모여있다. 연금술평의회의 사도들이 아그나르의 신체를 모아 우물로 던져버린다. 얼마후 망자의 재앙이 3층으로부터 시작되고 성은 대흘란이 찾아온다. 이어 오르도레멘티아의 사도들이 우물속에서 아그나르를 발견하고 기계지식을 이용하여 아그나르의 신체를 개조하고 뇌에 기계장치를 심어 기억조작에 들어간다.]

아그나르: “내가 연금술평의회의 첫번째 실험체이자...폐기물...그리고 오르도레멘티아에 의해 재생된 글룸바운더...?(바닥에 있는 괴물의 신체와 피 그리고 기억의 조각에 반응하는 자신을 돌아보는 아그나르)

만신창이의 몸을 이끌고 오르테누스의 방앞으로 다가가는 아그나르 그앞에는 바르드로스가 기다리고 있다.

바르드로스: “어서 와, 정화자. 내 연주가 쿵가에 달았다는건 네가 아직 완전히 썩진 않았다는 뜻이지”

아그나르: “기억의 조각에서 봤던 놈이군...쓰레기같은놈...수많은 사람이 죽고 재앙이 시작됐어...갈기갈기 찢어주마...”

바르드로스: “안타깝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거야 하하 나는 나대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래를 완성시켰거든 ...약간의 제약이 있지만 말이야”

아그나르: “비겁하군 ...사람들은 억울하게 망자가 되어 고통받았는데...연금술평의회에 관련된 너희들의 모든 잔재를 소멸시켜주마...”

바르드로스: “오 그래? 그렇긴 하지만 쉽지않을텐데 흥미롭군 그럼 우리 거래하나 할까?

아그나르: “거래? 내가 그 거래에 응할 이유가 있나?

바르드로스: “물론 있지...왜냐면 넌 이 재앙을 끝내기엔 역부족이거든...내게 금화를 내어준다면 왕국의 봉인된 룬을 이용해 막혀있는 너의 힘을 개방시켜주지”

아그나르: “힘이라.. 금화가 없다면? 그런데 넌 뭘 얻지?”

바르드로스: “금화를 주지 않는다면 그 어떤 힘도 출서 없다. 나조차도 이형체로 유지되지 못하지. 하지만...”

아그나르: “이봐 결국 넌 금화가 없으면 스스로 소멸되는거잖아. 결국 자기존재를 연명하기 위한 비굴한 거래군 집어치워 너의 힘따위 필요없다”

바르드르스: “크크크 분명 룬의힘은 너처럼 완전히 죽지 못한 자들에게는, 아직 쓸모가 있을텐데...완벽한 정화를 위해! 그러니 거래하자. 너는 강해지고, 나는 살아남는다”

아그나르: “룬의 힘이라...그래...밀져야 본전이지...후회하게 해주마...”

바르드로스:(금을받고 힘을개방시켜줌)

#8- 성채 최심부 지하 창조의방

미로같은 복도를 지나 먼지와 거미줄이 뿐옇게 쌓인 방문앞에 선 아그나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간다. 뿐옇게 내려 앉은 먼지 기억의 조각에서 보았던 그 방과 흡사하다. 그리고 그곳엔 그 심연을 지키고 있는 최초의 실험체 피해자 레이나가 서있다.

레이나: “널 기다리고 있었어, 아그나르...”

아그나르: “당신 정체가 뭐지 어떻게 날 알고있나?”

레이나:“첫번째 연금술평의회의 회생자 그게 바로 나야, 그리고 우린 과거에 특별한 관계였지...”(레이나의 발밑에서 오르골이 돌아간다. 초반 망자의 기억에서 들었던 멜로디)

멜로디가 들리자 아그나르는 또다른 기억의 조각이 공명하고 과거 레이나와의 관계를 알게된다.

[event_아그나르 과거의 기억_망자의 마을에서 본 기억과 연결되는 장면 얼굴이 보이지 않는 남자와 아그나르는 광장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얼마안가 두사람 동시에 한곳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다. 그곳엔 레이나가 수줍은듯 서있고 두사람에게 다가와 가벼운 인사를 한다. 때마침 남자의 얼굴이 보이고 인자한 표정과 레이나와 같은 은빛 머리색깔이 눈에 들어온다. 그는 레이나의 아버지였고 레이나와 아그나르를 가볍게 포옹해준뒤 가벼운 인사와 함께 자리를 뜯다. 이어 아그나르는 레이나에게 펜던트를 걸어주고 가볍게 입을 맞춘다. jump cut 오르테누스의 실험실에 힘없이 누워있는 레이나. 머리를 감싸고 고통스러워하는 레이나의 아버지 그리고 그뒤로 보이는 아그나르의 슬퍼하는 모습 jump cut 연금술평의회의 회의실로 뛰어가는 아그나르 줄을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헤집고 문을 박차고 들어간다. 아그나르의 눈앞에 앉아있는 오르테누스.(영겁의 연단에서본 기억의 조각과 연결됨) 아그나르는 오르테누스의 역살을 잡고 분노를 표출한다. 오르테누스의 옆은미소 와 함께 jump cut]

레이나의 모습이 또다시 유령처럼 사라진다.

오르테누스: “오... 드디어 만나는 군요”

아그나르: “?! 너...모든재앙의 근본...잔재의 뿌리...”

오르테누스: “재앙의 근본이라...저는 그저 반복되는 왕국의 비극을 선조들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주 작은 실수가 있었지만요 하지만 곧 완성될것 같네요 덕분에”

아그나르: “실수...해방...아주 쉽군 수천명의 봇숨값에대한 변명치곤 말이야...”

오르테누스: “그들은 군세로써 존재했다면...곧 저의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르도레멘티아의 꼭두각시가...쓸데없는 짓을 하고다닌거죠”

아그나르: “난 네놈의 재앙에서 모두를 해방시키기위한 정화의식을 했을뿐이다...너 또한 오늘 정화로써 소멸시켜주마...”

종말의 심연 오르테누스와 전투후

쓰러진 오르테누스를 바라보는 아그나르 그의 기억의 조각에 아그나르에게 공명한다.

[event_아그나르가 실험에 참여한이유

아그나르는 3층의 연금술평의회의 재단에서 영혼이 빠진채 본능만살아있는 레이나를 빼돌려 커다란 실험관에 봉인시킨다. 그리곤 자신의 영혼을 통하여 레이나를 영혼을 되돌리기 위해 스스로 주술사들이 모여있는 마법진 위로 눌른다. 곧이어 오르테누스의 선장에 주술사들의 주문이 시작되고. 곧이어 아그나르의 생명력의 빠져나와 어떤생물의 뇌로 들어간다. jump cut

(episode1의 오르테누스와 레이나의 실험장면) 오르테누스: “선조들의 영광은 잊어라
...그들은 위선자들이고 방관자들일 뿐이다... 이제 때가 도래했으니...왕국의 축복을 널리 펼쳐야 하리니... 너를 영생으로 이끈 자들을 기억하라.”

오르테누스의 마지막말이 끝나자 이내 여자의 눈이 아주 살짝 떠지고 오르테누스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띄어진다. 마침내 레이나는 죽음을 초월한 상태가 되었고, 오르테누스의 신격구현의 필요한 핵심재료로 이용하려고 하지만 일전에 아그나르의 봉인으로 인해 실험관에서 꺼내는데는 실패한다. 결국 레이나는 아그나르로 인해 죽지도 살지도 않은 상태가 된다.]

또다시 나타난 레이나의 잔상 아그나르는 레이나가 있는쪽을 향해 다가간다. 작은 방문을 열자 그곳엔 실험관에 갇혀있는 레이나의 본체가 모습을 보인다.

레이나: “네가 날 살리려는 순간, 세상은 멈췄어”

아그나르: “세상이 멈춰? 어떻게?...그리고 난 왜 전혀 기억나질 않는거지...”

레이나: “그건... 네가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야”

아그나르: “무슨진실?

레이나: “나는 그때 죽었어야 했어”

아그나르: “?! 그게 무슨...”

레이나: “나의 육체와 에너지가 신격 구현에 필요한 재료였기때문에 오르테누스는 끊임없는 피조물,변이체들을 양산하고 있는거야”

아그나르: “하지만 이제 끝난거잖아 오르테누스는 정화 되었어”

레이나: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오르테누스 최종 변신후

마지막 전투후

무너지고 있는 성 아그나르는 봉인되어있는 레이나를 실험관에서 꺼내어 탈출하려고 한다.

레이나: “안돼...”

아그나르: “무슨소리야 모든 잔재와 재앙은 정화되었어 여길 빠져나가야해”

레이나: “아니야 아직 모르겠어?

레이나: “우리는 시간의 루프속에 갇혀있는거야...그리고...이 고리를 끌낼 수 있는 유일한 자...”

아그나르: “시간의 루프라니... 도대체 무슨소리야”

레이나: “내가 오메가고...알파야 내가 이 재앙의 시작이고 끝이란 얘기지:”

아그나르: “그러면... 어떻게?”

레이나: “이미 알고 있잖아”

레이나가 아그나르의 품을 가르킨다. 아그나르가 그곳을 뒤지자 양피지 조각이 나온다.

아그나르: “스스로 깨닳게 될것이다...그날이 오면 우린 모두가 해방될것이다”

레이나: “내가 정화되어야 왕국은 시간의 루프에서 벗어날수 있어”

무너져 내리는 성 아그나르는 레이나를 안은채 무너져내리는 성과 함께 소멸한다.

엔딩_레비아가 기록을하고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fade out

주요 npc 대사

-시간의 저주(에이라문트)

“지금이 몇시쯤이지? 난 아무것도 느낄수 없어...바람도 흐르는 물소리도, 마치 여명과 황혼의 그사이에 갇혀 있는것 같아”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않아 단지 우리가 맞이 하는 운명이란건 선택의 연속이야...”

“스스로 선택한 운명은 피할수 없어...그건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과 같아”

“글쎄 떠돌아 다니다보면 많은것을 볼수 있지 하지만 나는 너무 지쳤어... 그건 너도 마찬가지일텐데...”

“우리는 산속에서 혜매이는 당나귀...나침반 없이 표류하는 배...어둠속의 나그네 그저 빙글빙글 돌뿐이야”

“혹시 알아? 카드가 암흑속에 한줄기 빛이될지...”

-저주의 돌(베라크)

“이것은...달콤한 유혹 지식의 저주...나는 태양에 달고 싶어하던 이카로스...존재는 훌러넘치는 물...황폐한 뢰비우스의 락...”

“나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그것은 악몽이고 저주야...”

“멈추고 싶지만 계속 떠오른다...내 몸에서 저주의 씨앗이 자란다...”

“나는 점점 글리프의 저주에 잠식되어가고 있다...나는 누구지 이건 누구의 기억이지”

“진실을 알고싶다면...내 글리프를 나눠주도록 하지...하지만 진실엔 감당하지 못할 힘이 있어...”

“글리프가...당신에게 힌트가 될지 저주가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

-피의 계약자(사일렌트)

“내가 이렇게 된건 다 왕국을 위해서였지... 난 그저 재앙을 막기 위해 불사의 힘을 갈구했을 뿐이야.”

“그룸바운더가 너 혼자만 있었던건 아니지 그들은 성전을 치루는 최후의 전사들이었어... 물론... 대다수는 타락해서 폐기물신 세를 면치 못했지...”

“너에게서 좀 다른 피냄새가 나는군... 수많은 실패자들과는 다른 냄새다...!”

“그룸바운더에게 실패란 없어... 죽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정화해 나아가야해”

“더 강해지길 원하는가 너의 피를 나에게 바쳐라! 그렇다면 네 피가 어떤 잠재력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있겠지!”

“내가 원하는거? 그저 조금의 피... 더 많은 피를 원할 뿐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탐욕의 동전(바르드로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지... 그들은 몰랐겠지 오만한 사이비들...”

“정당하지 못한 거래가 그들을 재앙으로 이끌었다...”

“영생을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지...”

“나는 영생을 위해 금화를 바쳤다...”

“지옥으로 가는 노잣돈 치고는 충분한 것 같은데”

“거래를 하지... 금화와 봉인된 룬...”

“어쩌면 너 같은 녀석들이 내가 풀지 못한 비밀을 밝히는 열쇠가 될지도...
그러니 거래하자. 너는 강해지고, 나는 살아 남는다...”